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2월

교육학(음악교육)석사학위논문

피아노 기초교재의 비교·분석과 교재선택에 대한 실태조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허 수 민

피아노 기초교재의 비교·분석과 교재선택에 대한 실태조사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Selection and Using
Method of Piano Fundamentals Materials

201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허 수 민

피아노 기초교재의 비교·분석과 교재선택에 대한 실태조사

지도교수 조 정 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허 수 민

허수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재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지 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정 은 인

201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피아노 교재의 역사적 고찰	3
2. 우리나라 피아노 기초교재의 종류	4
3. 피아노 교육에서 교재의 중요성	5
4. 피아노 기초교재의 선별 기준	7
III. 피아노 기초교재의 사용 실태조사	12
1. 설문조사 목적	12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2
3. 설문지의 구성	13
4. 설문조사 결과 및 해석	13
IV. 피아노 기초교재의 비교·분석	23
1. 「세광 뉴 바이엘」과 「피아노 어드벤처」교재 연구	23
2. 「세광 뉴 바이엘」과 「피아노 어드벤처」비교·분석	38

1) 교재의 구성 및 특징	38
2) 피아노 기초교재의 기본자세 비교	40
3) 최초의 연습곡 형태	42
4) 보표의 접근	45
5) 음표 · 쉼표 · 박자표	47
6) 계이름 · 음이름	51
7) 음정	54
8) 음계와 주요 3화음 학습	57
9) 아티클레이션	61
10) 임시표	65
V. 결론 및 제언	69
참 고 문 헌	71
부 록	73

〈표 목 차〉

<표 1>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기초교재	4
<표 2> 피어셀(David Piersel)의 평가기준	8
<표 3> 정완규의 평가기준	10
<표 4> 교사의 학력	13
<표 5> 교사의 지도 경력	14
<표 6> 피아노 레슨 유형	14
<표 7> 현재 사용 중인 초급교재의 종류 (중복체크 가능)	15
<표 8> 본인이 사용한 교재들의 특징 및 장·단점	15
<표 9> 피아노 기초교재 선택 시 고려사항 (중복체크 가능)	16
<표 10> 피아노 교육에서 교재 연구에 대한 필요성	16
<표 11> 올바른 초급교재 사용을 위한 연구 노력 (중복체크 가능)	17
<표 12> 초급교재의 만족도	17
<표 13> 레슨을 위한 준비 방법	18
<표 14> 피아노 교재의 올바른 지도를 위한 도구 (중복체크 가능)	18
<표 15> 레슨과정에 중점 요소 (중복체크 가능)	19
<표 16> 기초과정에서 청음 수업 방법	19
<표 17> 기초과정에서 이론 수업 방법	20
<표 18> 기초과정에서 감상 수업 방법	20
<표 19> 기초과정에서 즉흥연주를 포함한 창의적 수업	21
<표 20> 교수법에 대한 아동 지도 일치 유·무	21
<표 21> 선생님과 학부모의 학생상담	22
<표 22> 학생의 진도 결과에 대한 평가 (중복체크 가능)	22
<표 23> 세광 뉴 바이엘 1권 - 주요 학습 내용	24
<표 24> 세광 뉴 바이엘 2권 - 주요 학습 내용	25
<표 25> 세광 뉴 바이엘 1권 - 주요 학습 내용	26

<표 26> 세광 뉴 바이엘 1권 - 주요 학습 내용	27
<표 27> 피아노 어드벤처 1급 - 주요 학습 내용	30
<표 28> 피아노 어드벤처 2급 - 주요 학습 내용	31
<표 29> 피아노 어드벤처 3급 - 주요 학습 내용	32
<표 30> 피아노 어드벤처 4급 - 주요 학습 내용	33
<표 31> 피아노 어드벤처 5급 - 주요 학습 내용	34
<표 32> 피아노 어드벤처 6급 - 주요 학습 내용	35
<표 33> 피아노 어드벤처 7급 - 주요 학습 내용	36
<표 34> 피아노 어드벤처 8급 - 주요 학습 내용	37
<표 35> 교재의 구성 및 특징 비교	39
<표 36> 기본자세 비교	42
<표 37> 최초의 연습곡 형태 비교	44
<표 38> 보표의 접근 비교	47
<표 39> 음표·쉼표·박자표 학습 비교	51
<표 40> 계이름·음이름 학습 비교	54
<표 41> 음정 학습 비교	57
<표 42> 음계와 주요3화음 학습 비교	60
<표 43> 아티클레이션 학습 비교	65
<표 44> 임시표 학습 비교	68

〈악보 목차〉

〈악보 1〉 세광 뉴 바이엘 1권	43
〈악보 2〉 세광 뉴 바이엘 1권	45
〈악보 3〉 피아노 어드벤처 1급 A의 교재	53
〈악보 4〉 세광 뉴 바이엘 2권	55
〈악보 5〉 피아노 어드벤처 2급 A의 교재	56
〈악보 6〉 세광 뉴 바이엘 3권	57
〈악보 7〉 세광 뉴 바이엘 4권	58
〈악보 8〉 세광 뉴 바이엘 4권	58
〈악보 9〉 피아노 어드벤처 4급 A의 교재	59
〈악보 10〉 피아노 어드벤처 4급 A의 교재	59
〈악보 11〉 세광 뉴 바이엘 2권	61
〈악보 12〉 세광 뉴 바이엘 2권	62
〈악보 13〉 세광 뉴 바이엘 2권	62
〈악보 14〉 피아노 어드벤처 1급 B의 교재	63
〈악보 15〉 피아노 어드벤처 2급 A의 교재	63
〈악보 16〉 피아노 어드벤처 2급 A의 교재	64
〈악보 17〉 세광 뉴 바이엘 3권	66
〈악보 18〉 세광 뉴 바이엘 4권	66

〈그림 목 차〉

[그림 1] 피아노 어드벤처 1급 A의 교재	43
[그림 2] 세광 뉴 바이엘 1권	46
[그림 3] 피아노 어드벤처 1급 B의 교재	46
[그림 4] 세광 뉴 바이엘 1권	48
[그림 5] 세광 뉴 바이엘 2권	48
[그림 6] 세광 뉴 바이엘 1권	49
[그림 7] 피아노 어드벤처 1급 A의 교재	49
[그림 8] 피아노 어드벤처 2급 A의 교재	50
[그림 9] 피아노 어드벤처 1급 B의 교재	50
[그림 10] 세광 뉴 바이엘 1권, 2권	52
[그림 11] 피아노 어드벤처 1급 A의 교재	52
[그림 12] 세광 뉴 바이엘 1권	54
[그림 13] 피아노 어드벤처 2급 A의 교재	55
[그림 14] 피아노 어드벤처 2급 A의 교재	55
[그림 15] 피아노 어드벤처 2급 B의 교재	67
[그림 16] 피아노 어드벤처 2급 B의 교재	68

ABSRTACT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Selection and Using Method of Piano Fundamentals Materials

Heo, Su min

Advisor: Prof. Jung eun Cho, Ph.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s no parents in the world have higher educational enthusiasm than Korean parents,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latter are very interested in early education. Therefore, the environment for early piano education has been formed in Korea. However, unfortunately, it can not guarantee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because piano academy can be approved and established simply by reporting piano tutoring service to the authority as long as the service provider graduates from college, regardless of his or her major. As a result, most of the children began learning piano fundamentals in this environment as it has become the norm in Korea that most of parents send their children to learn it at a private piano academy. In addition, piano teachers still stuck to historically old basic textbooks while new textbooks and teaching methods have developed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this study, therefore, I intended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teachers' choosing piano teaching materials and examine the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 of piano fundamental education. Furthermore, I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between Beyer, which has been long used as the fundamental material for piano education, and Piano Adventures, which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and used in Korea.

The methodology and scope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 designed the overall framework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Second, relying on

my personal experience with related literature, professional books, and teaching piano fundamental materials, I explor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relevant to piano education. Third, I conducted a survey of 40 piano teachers in Gwangju area to know their actual conditions for piano education. Fourth, I tried to find useful factors to apply, by investigating, comparing and analyzing 2 piano fundamental textbooks chosen. Fifth, volume 1 through 4 of Sekwang New Beyer, which were published by Sekwang Music Publishing Co. (2004), were used as textbooks for this study, and Class 1 to 8 of 'Piano Adventures' by Music Tree (2003).

In examining the social awareness of selecting a piano textbook, I found that music teachers choose Beyer and Piano Adventures more than anything else. In addition, it was known that when they choose a piano fundamental material to teach with, they do not only emphasize the basic piano skills such as melody and accompaniment, but their focus has gradually shifted from learners to age, interest, learning ability, and technique.

In addition, I carried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Sekwang New Beyer and Piano Adventures for composition, features, fundamental position, the form of the first practice music, approach to staves, musical notes, comma, time signature, scale, note name, pitch, learning major triad, articulation, and accidental.

I made such findings as follows. 'Sekwang New Beyer' cannot be considered suitable for comprehensive music education because it lacks in various musical concepts and annotations. Unlike existing Beyer, however, Piano Adventures uses pictures and scores without staves, so they meet the level of the learners. Furthermore, Piano Adventures introduces various musical concepts and sufficient explanations so as to help the learners understand them. Therefore, I can say that they are ideal textbooks to help them develop overall musicality. However, it also has a demerit that it is somewhat difficult to learn alone, without separate education to teach.

Children's learning ability is various and different by individual. Also, every child has a different motivation to begin a piano lesson with and a different goal to

achieve. Moreover, each textbook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techniques to express music, and a learning objective. This is why teachers or parents should carefully choose a textbook suitable for a learner.

A new textbook is not necessarily valuable, but each textbook has it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m well and make a good choice. Music teachers should keep their interest in various textbooks newly out in the market. In addition, they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ir composition and learning objective so they can choose textbooks suitable for the level and learning objective of a learner. Also, they need to be flexible enough to use more than one textbook so as to let them complement each other, rather than being persistent on the only on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작게는 문화예술교육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창의력 제고에 기여하고(장혜윤 외, 2017: 27), 보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김정효, 2017: 53). 이에 따라 정옥희(2017: 166)는 문화예술 활동이 인간의 의식 속에 광범위하게 침투하여 영향을 미치는 인간 경험이라고 한 바 있다.

인간의 문화예술 활동 가운데 음악의 중요성은 존재론적 관점에서나 심미적인 관점에서 모든 예술 중에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홍사현, 2016: 268). 특히, 유아들의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유아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계발하여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선희, 2015: 282). 따라서 21세기 지능정보사회는 국가적 경쟁력 확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의성, 감수성, 상상력 등이 강조되는데 문화영역과 교육영역의 중요한 과제이자 전략으로서 음악교육은 그 중요성이 있다(김정효, 2017: 54).

한국 사회에서 음악교육의 가장 대중적인 분야는 피아노 교육이다. 피아노 학습은 이미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1980년 이후 아동교육 중 빼 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정완규, 2002: 10). 한국의 학부모들은 다른 나라 학부모들에 비해 상당히 교육열이 높는데 이런 경향 속에서 피아노 교육이 널리 확산되어 왔으며 양적인 확산 정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정완규, 2002: 10).

그러나 양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이라 하여 과연 질적 수준까지 장담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초음악에 대한 학부모들의 사회적 인식은 높으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전문적으로 검증된 교육기관이나 전문교사를 찾기 이전에 자신의 집에서 가깝고 수업료가 저렴한 음악학원을 통해 기초교육을 받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음악교육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학력 및 전공분야의 비교결과, 예전에 비

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학원의 경우 개인레슨 보다는 비전공자 교사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신혜정, 1999: 15). 문제는 대학만 나오면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과외 교습 신고를 할 수 있고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게 되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피아노 기초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전공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들이 선택하는 교재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교육계의 일각에서 교재와 교수법 연구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되고 있으나 아직도 피아노 교사들의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초교재를 사용하고 있다(하은, 2007: 4).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그 동안 기초교재로 사용되었던 바이엘과 새로운 교재에 대한 비교가 필요함을 인지하였고 교재 사용의 실태와 두 교재를 비교·분석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피아노 교사들이 초급교재를 선택하는 기준과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고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세광 뉴 바이엘」과 종합적인 음악성 개발에 목적이 있는 「피아노 어드벤처」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각 교재의 장점과 단점 및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피아노 기초교육에 대한 전문성 차원의 논의를 벌여가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 기초교재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선행 논문들의 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인 틀을 구상한다. 둘째, 관계 문헌자료와 전문 서적 그리고 피아노 기초교재로 지도해 왔던 경험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탐색한다. 셋째, 피아노 교재의 선택에 대한 실태를 광주 지역의 피아노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다. 넷째, 선정된 두 개의 피아노 기초교재를 조사,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활용 요소를 살펴본다. 다섯째, 연구에 사용된 교재는 피아노 기초교재로 알려진 다양한 교재 중에서 「세광 뉴 바이엘」 1권부터 4권 (세광음악출판사, 2004)과 「피아노 어드벤처」 1급부터 8급(뮤직트리, 2003)으로 한정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피아노 교재의 역사적 고찰

1709년 이탈리아 크리스토포리(Cristofori, Bartolomeo di Francesc)의 피아노 제작 이후 1850년을 전후하여 악기의 보급과 함께 피아노 교재가 처음으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하은, 2007: 14). 18세기 중엽 유럽의 피아노 교본은 시작부터 테크닉적인 연마로 들어가 어느 정도 기술이 향상된 후에 고전 곡을 가르치는 교습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피아노 교습이 일반화 되지 않았고 전문 음악가나 취미 생활을 방편으로 음악을 즐기려는 극소수의 부유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 교본이란 오늘날의 교본과 다른 것이었으며 지도 대상도 차이가 있었다.

19세기 중반 전후해서 피아노 보급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는데 작곡 양식의 변화와 악기를 다루는 기교의 변화로 피아노 교육에 대한 여러 혁신적인 개념이 표면화되었다. 더불어 일반인도 문화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피아노 연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피아노 교육도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일반 대중을 위한 음악교육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에밀 자크 달크로즈(Emile Jacques Dalcroze), 칼 오르프(Carl Orff), 졸탄 코다이(Zortan Kodaly) 등의 새로운 음악교육 철학과 방법론이 음악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하은, 2007: 14). 특히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주의 철학의 영향 등으로 학생 중심, 경험 중심의 음악교육 방법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와 더불어 포괄적인 음악교육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어 새로운 음악교육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이홍수, 1990: 38). 피아노 지도가 일반화되었지만 손가락 훈련에 치우친 과거의 피아노 교육은 지도 대상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룹 지도와 연관된 활동, 자료들을 근거로 피아노 교수법의 발전을 가져왔다. 학습되는 모든 기본개념은 음악 간의 관련 관계를 인식하기 위하여 연주, 음악분석, 창작의 모든 분야에 대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가 되면서 이러한 학습으로 한 교재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시대적 변화는 피아노 교수법(Piano Pedagogy)이란 새로운 분야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원미정, 2009: 5). 피아노 교재(Piano Method)라는 용어는 20세기 전후 미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는 음악적 지식개발과 리듬, 청각, 기교적인 면의 상호 관련성을 지도하는 접근으로 서서히 가중해 나갔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된 교재들은 고전적인 교재와 다르게 내용 및 구성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1950년부터는 포괄적인 음악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피아노 실기와 음악이론, 공부의 균형을 이룬 교수법 연구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피아노 교재를 중심으로 음악이론, 테크닉 교재를 통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이혜영, 1990: 9).

2. 피아노 기초교재의 종류

다음은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대표적인 피아노 기초교재들의 목록이다. 국내에는 다수의 기초교재들이 출판되고 있으나 본 논문의 피아노 기초교재의 종류에는 연구자가 설문조사한 교사들이 응답한 것과 설문 내용에 거론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표 1>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기초교재

교재명	저자 / 출판사(연도)
세광 뉴 바이엘	세광음악출판사 편집부 / 세광음악출판사(1996)
새로운 피아노 교본	음악교육협의회 / 세광아트(1988)
클라비어	정완규 / 태림출판사(1998)
알프레드	Amanda Virk Lethco & Will iard A. Palmer / Morton Manus(1981)
톰슨 피아노 교본	존 톰슨 / 세광아트(1992)

메토드 로즈 피아노 교본	에르네스트 방 드 벨드 / 세광음악출판사(1994)
베스틴 피아노 교본	제임스 베스틴 / 음악춘추사(1992)
하이비스	이데 유미코·송지혜·정수임 / 세광음악출판사(1996)
엘리트 피아노	현대음악출판사 편집부 / 현대음악출판사(1997)
꼬마손 피아노 교본	이은화 / 세광음악출판사(1998)
미크로코스모스	세광음악출판사 편집부 / 세광음악출판사(1998)
프라임 피아노	일신음악연구회 / 일신서적출판사(1999)
글로버 피아노 교본	데이비드 카 글로버 / 세광음악출판사(2001)
피아노 공부	태림출판사 편집부 / 태림출판사(2001)
피아노 어드벤처	Nancy Faber / 뮤직에듀벤처(2012)
피아노 베이직	유은석 / 음악세계(2005)
쑹쑹 뮤직타임	세광음악출판사 편집부 / 세광음악출판사(2008)
뉴에이지 피아노	일신음악연구회 편 / 일신서적출판사(2017)
피아노 Academia	강효정 / 세광음악출판사(2017)
Pischna 60	Josef Pischna / 티메카(1985)

3. 피아노 교육에서 교재의 중요성

교육의 발전에 따라 피아노 연주와 지도방법이 급속히 발전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교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만 50여 종이 넘는 피아노 기초교재들이 출판되고 있다(송정어, 1986 : 81).

우리나라에서 피아노 교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피아노 메썬드(Piano Method)란 용어는 20세기 전후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이성희, 2000: 4). 특히 192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조기교육과 그룹레슨을 위한 새로운 교수방법에 교육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면서 1955년 이후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이세진, 2013: 14). 즉, 메썬드(Method) 형식의 교재들은 피아노 교수법의 발달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음악대사전, 1982: 81).

이처럼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음악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실정은 단순히 악보 읽기나 연주 기술의 습득만을 위한 지도 과정에 머물러 있다. 음악 자체를 즐기고 애호하는 태도가 아닌 기계적인 반복 학습이 학생들의 개성과 예술성을 감퇴시킨다. 풍부하고 다양한 음악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요한 음악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테크닉, 음악이론, 청음과 독보, 초견, 연주 등 종합적이고 다원적인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은 아동, 학생의 음악 경험 즉, 음악의 표현 및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음악을 스스로 창작하는 학습 이외에 이미 악곡으로써 만들어진 교재를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이세진, 2013: 15). 따라서 교재로서의 음악 작품의 질이나 내용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음악 교사의 지도에 우선하여 학습 내용이나 학습 계열을 규정하기 때문이다(이호선, 2007: 9). 아무리 우수한 교사의 지도도 교재로서의 악곡은 이미 그 범위를 한정 받게 되고 그 순서 배열에 따라 지도의 방향이 결정지어진다(유덕희, 1990: 167).

이처럼 기초 학습의 도입기에 교재를 선택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교재 결정에는 교사나 학부모, 학습자 모두에게 책임이 따르게 된다. 선행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러한 교재의 선택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는

데 피아노 학습에 들어가기 이전에 반드시 학습자 자신과 맞는 교재를 확인해야 한다.

페이스(Robert Pace)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이며 피아노 교육계의 권위자이다. 그는 피아노 교수의 진정한 목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음악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음악 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연경, 1987: 20).

이렇게 학습자가 능동성을 가지고 음악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연령, 능력, 수준, 적성 등을 고려하여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음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음악의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삶과 연계성을 가지고 솔직한 감정 표출 및 표현력을 훈련하여 능동적인 탐구심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재로 지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음악교육의 성패는 교사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재가 내용 및 학습 목표, 체계적인 구성으로 되어있어도 이를 지도하는 교사가 저자의 의도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4. 피아노 기초교재의 선별 기준

피아노 기초교재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각 교재마다 강하고 약한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시리즈라 할지라도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를 만들어 낸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재의 질을 측정 할 수 있는 지침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여러 학자 중 미국 주립대학의 피어셀 교수와 우리나라 피아노 교수법 박사이자 「클라비어」의 저자인 정완규가 사용한 평가지침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이세진, 2013: 23).

1) 피어셀(David Piersel)의 평가 기준

피어셀의 교재 선별 기준의 구성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근방법, 형태, 자료의 연속성과 진행성, 교본의 목적, 음역, 박자를 세는 방법, 리듬의 제시, 화음과 음계, 이론, 보충자료, 형식과 구조, 음악성의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조유림, 2010: 19).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피어셀(David Piersel)의 평가 기준

평가기준	내 용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온다 음인가 · 점진적인 여러 조성인가, 또는 다른 것인가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이나 사진이 삽입 되었는가, 컬러판인가 · 악보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가 · 악보의 구조가 알맞게 현실적으로 꾸며 졌는가 · 자료의 주석처리가 어수선하지 않고, 학생들의 언어로 표기 되어졌는가 · 책이 실용적이며 학생이 성취감을 가질 정도의 길이인가
연속성과 진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비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교본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지도용인가, 개인지도용인가 · 집단지도와 개인지도가 합병된 구조의 레슨용인가
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역이 건반의 중간 부분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은가 · 건반의 음역을 넓혀서 학습하도록 출판물이 꾸며 졌는가
박자 세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절을 나누어서 세는가, 번호로써 세는가 ·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 하는가

리듬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어떤 종류의 리듬이 제시 되는가
화음과 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Block chord)과 펼침(broken chord)화음이 모두 사용 되는가 · 언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 장·단조의 음계가 제시되어 있는가 · 여러 종류의 화음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정, 화음이 제시되어 있는가 · 기능 화성 또는 건반화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창작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가 · 조옮김이 강조되어 있는가 · 기존 피아노 교재 이외에 개별적인 참고 교재가 따로 사용되는 경우에 어떻게 적용 하는가
보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교육 과정은 어떤 종류의 자료를 쓰는 것이 좋은가
형식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가
음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교재를 통해서 창의력과 음악성을 기를 수 있게 되어 있는가, 피아노를 치는 기술만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출처 : 조현우(2009). “피아노 기초 교육을 위한 교재 분석 연구” p.16

2) 정완규의 평가 기준

정완규의 교재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반 접근방법, 리듬, 음악 읽기, 테크닉, 귀로 듣기, 레퍼토리, 음악성, 전체적인 짜임새 및 구성의 9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의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정완규의 평가기준

평가 기준	내 용
건반 접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인 조에 의한 접근인가, 여러 조에 의한 접근인가 · 가온 ‘다’ 접근인가
음악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보에서 음과 음악 기호를 읽기 쉽게, 단계적인가 · 음악읽기에 효율적으로 응용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이 주 교재와 병행, 교재 전체에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 이론적인 리듬 소개 이전에 온몸을 통하여 리듬을 느끼고 표현하는 교육이 제시되는가
테크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닉 연습이 응용곡 및 주교재에서 요구하는 테크닉과 연결되어 있는가 · 손 모양과 부드러운 손목 사용, 음악적 표현에 대한 연습이 포함되어 있는가
레퍼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종류의 곡들, 즉 동요, 민요, 창작곡, 고유의 고전 피아노곡, 다양한 장르로 편곡된 고전 곡들이 소개되어 있는가 · 연탄곡이나 교사의 반주도 포함되어 있는가

귀로 듣기	· 귀로 듣는 교육이 강조되어 있는가
음악성	· 반주 붙이기, 전조하기, 선율 만들기, 즉흥연주 등 음악성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음악이론	· 조표, 음정, 장·단조 음계 및 선법, 음악 기호, 용어 및 3화음 등 음악적 개념들이 지도되고 있는가
구성 및 짜임새	· 수준별 등급구분과 전체적인 교재 길이가 적당한가 · 주 교재, 보충교재, 병행교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 지도대상 및 연령에 따라 교재가 구분 될 수 있는가

출처 : 조현우(2009). “피아노 기초 교육을 위한 교재 분석 연구” p.18

3) 각 학자들의 평가기준

미국 주립대학의 피어셀 교수와 우리나라 피아노 교수법 박사이자 「클라비어」의 저자인 정완규의 평가지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두 가지 교재의 평가 기준이 요소의 제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해보면 피아노 교재의 평가기준은 교재의 특징과 구성, 기보법과 조성, 박자와 리듬, 화음과 음계, 테크닉과 음악성, 이론 그리고 레퍼토리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 본 두 학자들이 제시한 피아노 교재의 평가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기초교재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선정된 두 교재를 비교·분석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Ⅲ. 피아노 기초교재의 사용 실태조사

1. 설문조사 목적

현재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반면 최근 출판되는 교재가 있고 사용 빈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교재의 종류나 다양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 실태에 대한 조사는 아주 미비하다.

교재는 교재로서의 의미와 제시하려는 내용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목적에 맞게 교육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즉, 교재와 관련된 피아노 기초교육의 이해는 교재 분석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현황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다양한 교재를 접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재가 많아지는 현 시점에 어떠한 기초교재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하고 그 선택이나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의미가 있다.

본 설문조사는 기초교재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로서 진행되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피아노 교육현장에서 각 교재의 구체적인 사용과 활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기초교재의 비교·분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9월 광주지역 40명의 피아노 교사에게 배부하였으며 배부 방법은 기초교육현장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수거하였다. 설문 결과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응답한 교사들에 대한 레슨 형태를 개인 또는 교습소, 음악학원으로 구분하였고 특정 교재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곳은 제외하였다.

3.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둘째, 피아노 초급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 셋째, 교사의 피아노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 단일 선택 항목이나 질문에 따라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석 도구로 사용된 본 연구의 설문지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4. 설문조사 결과 및 해석

<표 4>는 교사의 학력과 관련하여 질문의 응답 결과이다. 전문대 피아노과에서 해외 유학에 이르기까지 총 8개의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40명의 피아노 교사 중 4년제 피아노과를 졸업한 교사가 총 67.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의 학력은 비전공보다 피아노를 전공으로 한 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교사의 학력

	인 원	백 분 률(%)
전문대 피아노과	2	5.0
4년제 피아노과	27	67.5
음악학부 다른 전공	2	5.0
음악교육 전공	6	15.0
유아교육 전공	0	0
대학원 음악학과	1	2.5
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2	5
해외유학 졸업	0	0

<표 5>는 40명의 피아노 교사가 응답한 지도 경력을 보여준다. 1년에서 26년 이상까지 5년 단위로 항목을 제시하였다. 40명의 교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이 6년에서 10년의 경력이며 35.0%였다. 다음으로는 16년에서 20년의 경력으로 22.5%, 11년에서 15년 17.5%였다. 즉, 6년에서 20년 사이의 지도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교사의 지도 경력

	인 원	백 분 률(%)
1 ~ 5년	2	5.0
6 ~ 10년	14	35.0
11 ~ 15년	7	17.5
16 ~ 20년	9	22.5
21 ~ 25년	4	10.0
26년 이상	4	10.0

<표 6>은 피아노 레슨 유형에 관한 응답이며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학원의 비중이 67.5%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교습소, 개인레슨 순으로 나타났다.

<표 5>와 <표 6>의 설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주로 10년 이상의 교사들이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음악교육현장은 음악학원의 분포가 상당히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피아노 레슨 유형

	인 원	백 분 률(%)
개인레슨	5	12.5
교습소	8	20.0
음악학원	27	67.5

<표 7>은 교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초교재에 관한 응답 결과이다. 2가지 이상의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중복선택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위 표와 같이 다른 교재들보다 「바이엘」 교재와 「피아노 어드벤처」 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을 검토한 결과 음악학원에서는 주로 「바이엘」 교재를 많이 활용하며, 개인레슨의 경우에는 「피아노 어드벤처」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레슨 유형에 따라 교재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현재 사용 중인 초급교재의 종류 (중복체크 가능)

	인 원	백 분 률(%)
바이엘	29	54.717
베스틴	0	0
알프레드	2	3.774
피아노 어드벤처	17	32.075
하이비스	0	0
툼슨 이지스트	0	0
클라비어	0	0
기타	5	9.434

<표 8>에서는 본인이 사용한 교재들의 특징이나 장점, 단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응답 결과 “알고 있다”가 8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자신들의 레슨 유형에 따라 장·단점을 파악하여 교재를 선택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8> 본인이 사용한 교재들의 특징 및 장·단점

	인 원	백 분 률(%)
알고 있다	34	85.0
알지 못 한다	0	0
몇 개는 안다	6	15.0

<표 9>는 피아노 기초교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에 관한 질문의 응답 결과이다. 위의 표를 보면 주로 아동의 중심에서 연령과 흥미도, 학습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테크닉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제곡이 좋아서”가 마지막 순위가 된 것은 요즘 대부분 교재들의 곡들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9> 피아노 기초교재 선택 시 고려사항 (중복체크 가능)

	인 원	백 분 률(%)
아동의 연령	19	17.925
아동의 학습능력	25	23.585
아동의 흥미도	27	25.472
테크닉적인 발전	18	16.981
제제곡의 난이도	9	8.491
교재의 인지도가 높아서	5	4.717
제제곡이 좋아서	3	2.83

<표 10>은 피아노 교육에서 교재 연구가 필요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5가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매우 필요하다”가 47.5%, “필요하다”가 42.5%로 대다수의 교사가 교재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피아노 교육에서 교재 연구에 대한 필요성

	인 원	백 분 률(%)
매우 필요하다	19	47.5
필요하다	17	42.5
보통이다	4	10.0
필요하지 않다	0	0
모르겠다	0	0

<표 11>은 교사들의 현재 올바른 초급교재 사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주로 세미나 및 공개강좌 참여에 높은 비중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교사들과의 스터디, 인터넷 정보검색 등의 순으로 교사들의 연구 방법들을 알 수 있다.

<표 11> 올바른 초급교재 사용을 위한 연구 노력 (중복체크 가능)

	인 원	백 분 률(%)
인터넷 정보검색	11	18.333
세미나 및 공개강좌 참여	31	51.667
교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한다	12	20.0
전혀 안 한다	0	0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거나 교재 연구를 한다	6	10.0

<표 12>는 현재 사용하는 초급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매우 만족”이 7.5%로 나타났으며 일부의 교사들이 현재 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족”에 대한 비중은 47.5%로 “보통”과 비슷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교재에 대한 “불만족”은 2.5%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12> 초급교재의 만족도

	인 원	백 분 률(%)
매우 만족	3	7.5
만족	19	47.5
보통	17	42.5
불만족	1	2.5
매우 불만족	0	0

<표 13>은 교사들이 레슨을 위한 준비 방법이다. 관련 서적, 논문을 통해 레슨을 준비하는 것이 38.462%,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것이 38.462%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반면에 개인 레슨을 받는 것은 13.462%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표 13> 레슨을 위한 준비 방법 (중복체크 가능)

	인 원	백 분 률(%)
개인 레슨을 받는다	7	13.462
관련서적, 논문을 봄	22	42.308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	20	38.462
전혀 안 한다	3	5.769

<표 14>는 교사가 피아노 교재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 교재에 관한 세미나, 교구, 교사 지침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이어져 왔던 바이엘의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교사들의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새로운 교수법의 관심과 연구, 도입을 통해 지도의 발전을 보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14> 피아노 교재의 올바른 지도를 위한 도구 (중복체크 가능)

	인 원	백 분 률(%)
교사 지침서	14	18.421
교재에 관한 세미나	24	31.579
메트로놈	7	9.211
교구	14	18.421
교수법 관련 서적	12	15.789
기타	5	6.579

<표 15>와 같이 레슨과정에서 진도를 넘어갈 때 중점이 되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독보력이다. 다음으로는 리듬, 표현성 등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표현성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독보나 음악적 개념 이외에 예술적인 영역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진도 위주의 틀을 깨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표 15> 레슨과정에 중점 요소 (중복체크 가능)

	인 원	백 분 률(%)
독보력	29	28.155
표현성	15	14.563
암보	4	3.883
템포	14	13.592
리듬	24	23.301
음정	17	16.505
기타	0	0

<표 16>은 기초과정에서 청음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가끔 한다”라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본 결과를 통해 수업의 내용 중 청음에 대한 중요성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16> 기초과정에서 청음 수업 방법

	인 원	백 분 률(%)
주 1회	5	12.5
주 2회	4	10.0
월 1회	5	12.5
월 2회	1	2.5
가끔 한다	21	52.5
전혀 안 한다	4	10.0

<표 17>에서와 같이 응답자들은 청음 수업과 비교할 때 이론 수업의 비중을 높게 평가하였다. “레슨 때마다 항상” 이론 수업이 병행된다는 응답이 92.5%로 확인되었다. 처음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실기와 이론지도의 비중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같이 시작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7> 기초과정에서 이론 수업 방법

	인 원	백 분 률(%)
주 1회	0	0
주 2회	3	7.5
월 1회	0	0
월 2회	0	0
레슨 때마다 항상	37	92.5
가끔 한다	0	0
전혀 안 한다	0	0

<표 18>에서는 기초과정에서 감상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감상 수업도 청음 수업과 비슷하게 수업의 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47.5%의 응답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8> 기초과정에서 감상 수업 방법

	인 원	백 분 률(%)
주 1회	7	17.5
주 2회	1	2.5
월 1회	8	20.0
월 2회	2	5.0
가끔 한다	19	47.5
전혀 안 한다	3	7.5

<표 19>는 기초과정에서 즉흥연주를 포함한 창의적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결과이다. 즉흥연주를 포함한 창의적 수업은 이론 수업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45.0%의 응답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19> 기초과정에서 즉흥연주를 포함한 창의적 수업

	인 원	백 분 률(%)
주 1회	2	5.0
주 2회	1	2.5
월 1회	8	20.0
월 2회	0	0
가끔 한다	18	45.0
전혀 안 한다	11	27.5

<표 20>은 현재 지도 중인 피아노 교수법과 관련하여 아동 지도 일지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전혀 안 한다”의 5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매 순간 파악할 뿐 따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교수법에 대한 아동 지도 일지 유·무

	인 원	백 분 률(%)
주 1회	1	2.5
주 2회	1	2.5
월 1회	2	5.0
월 2회	1	2.5
레슨 때마다 항상	4	10.0
가끔 한다	8	20.0
전혀 안 한다	23	57.5

<표 21>은 선생님과 학부모의 학생상담 빈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6개월에 1~2회는 25.0%, 매월 1~2회는 22.5%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레슨 유형에 따라 음악학원의 교사들은 매달 혹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레슨의 경우에는 수시로 상담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1> 선생님과 학부모의 학생상담

	인 원	백 분 률(%)
학생을 처음 만날 때	2	5.0
6개월에 1~2회	10	25.0
매월 1~2회	9	22.5
수시로	18	15.0
필요시	1	2.5

<표 22>는 마지막 질문으로 학생의 진도에 대한 평가 방식의 응답 결과이다. 주로 개인별 평가와 연주회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평가를 할 때에는 주로 학습 진도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연주회는 참여도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교사들은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표 22> 학생의 진도 결과에 대한 평가 (중복체크 가능)

	인 원	백 분 률(%)
개인별 평가	28	58.333
연주회	13	27.083
다른 교사와 평가 한다	2	4.167
안 한다	5	10.417

IV. 피아노 기초교재의 비교·분석

1. 「세광 뉴 바이엘」과 「피아노 어드벤처」교재 연구

1) 세광 뉴 바이엘

바이엘 교재는 1854년 독일의 음악가인 페르디난트 바이엘(Ferdinand Beyer 1803~1863)에 의해 처음 발간되었다(이유리, 2011: 11). 초보자를 위한 피아노 입문서이며 1860년 영어와 독일어로 다시 편집, 출판되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이세진, 2013: 29).

원 제목은 “Vorschule in Klavierspiel op. 101”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일본을 통해서였다. 미국 교육자 L. W. Mason이 1876년 당시 일본의 초청으로 독일에서 발간된 피아노 교본 바이엘을 휴대하고 상륙하였다. 이것이 본격적인 피아노 교육의 시작이었으며 이것이 일본에 의한 국권침탈과 함께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초보자를 위한 피아노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하은, 2007: 28).

이 교재는 초보자가 피아노 주법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쓰였다. 이는 짧은 기간 내에 독보력을 향상하고 테크닉으로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교재라 할 수 있다(송정이, 1986: 88). 피아노 입문서로서 현재까지 가장 친숙하게 선택되는 바이엘은 전통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피아노를 배우려고 할 때 누구든지 큰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아노의 예술적 향상보다는 초보자의 기본적인 연주 기량의 완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음악성 개발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는데 손가락 독립을 위한 연습곡들과 여러 형태의 반복으로 학습자에게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바이엘이 출판되고 있으며, 그 종류가 약 50

여 중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 바이엘 교재는 단행본, 상·하권 혹은 세분화되어 출간되고 있다. 이 중 「세광 뉴 바이엘」은 최근까지 발행된 여러 개정 바이엘 교재 중 하나이다. 이 교재는 기존 바이엘 교재의 난이도를 재 연구, 검토하여 유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요소를 극복하였다. 그리고 피아노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에 맞게 개발한 피아노 교본이다(김신애, 2014: 25).

이처럼 교재를 보면 「바이엘」이라는 이름만 사용했을 뿐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원교재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바이엘 교재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크게 보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단계별 주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광 뉴 바이엘 1권

1권에서는 기본적인 자세와 건반 위치를 학습한다. 그리고 기본 리듬과 도(C)의 자리, 보표, 박자표, 음악용어, 음정 등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23> 세광 뉴 바이엘 1권 - 주요 학습 내용

	주요 학습 내용
1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세[자세, 손가락번호, 손 모양] p.9~10 • 검은 건반 제시 - 손 모양 만들기 p.10~17 [왼손, 오른손 2-3, 2-3-4, 왼손·오른손 이어서 치기 2-3-4] • 흰 건반 제시 p.18~25 [왼손, 오른손 1-2-3, 왼손·오른손 이어서 치기 1-2-3, 1-2-3-4, 1-2-3-4-5] • 음표 제시[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 점2분음표] p.11,13,15,55 • 양손 도(C)의 자리 제시[낮은도의 위치, 가온도의 위치] p.26~31 • 보표 제시[높은음자리 보표-오른손, 낮은음자리 보표-왼손, 큰보표] p.32,38,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자 제시[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p.33,54 • 음악용어[오선, 세로줄, 끝세로줄, 마디] p.34,35,36 • 음표의 기둥 방향 제시 p.41 • 연주 기호 제시[도돌이표] p.52 • 음정 제시[2도, 3도] p.56~58 • 양손 같이 치기 p.59
--	---

(2) 세광 뉴 바이엘 2권

2권에서는 새로운 음정과 쉼표, 아티클레이션을 학습하도록 구성 되어있다. 쉼여림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1권의 도(C)의 자리에 이어 솔(G)의 자리를 학습하도록 하여 건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표 24> 세광 뉴 바이엘 2권 - 주요 학습 내용

	주요 학습 내용
2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정 제시[3도, 4도, 5도] p.8,10,14 • 쉼표 제시[4분쉼표, 온쉼표, 2분쉼표] p.11,13,29 • 쉼여림[p, f, mf, mp,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p.12,17,19,49 • 가락음정 화성음정 제시 p.18 • 아티클레이션[이음줄, 스타카토, 레가토, 붙임줄] p.21,33,50 • 솔(G)의 자리 제시[솔, 라, 시, 도, 레] p.36,45 • 도(C)의 자리 제시[도, 레, 미, 파, 솔] p.42 • 연주기호[옥타브] p.47 • 박자 제시[4분의 2박자] p.54 • 음표 제시[8분음표] p.60

(3) 세광 뉴 바이엘 3권

3권에서는 도(C)의 자리와 솔(G)의 자리의 복습으로 시작한다. 음정과 손가락 운지법, 리듬 등 새로운 음의 자리를 파악함으로써 건반의 위치를 학습하게 되어있다. 임시표와 다장조의 음계를 제시하면서 가장조와 라장조, 바장조학습을 위한 예비학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25> 세광 뉴 바이엘 3권 - 주요 학습 내용

	주요 학습 내용
3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C)의 자리와 솔(G)의 자리 연습[복습] p.8~21 • 음정 제시[6도, 7도, 8도] p,21,60 • 연주기호(페르마타, rit., D.C.alFine) p,27,29,39 • 음표 제시[점4분음표] p.30 • 손가락 넘어가기 p.34 • 같은 음에서 손가락 바꾸기 p.35 • 라(A)의 자리 제시(라, 시, 도, 레, 미) p.40 • 음악용어[덧줄] p.40 • 여러 손의 자리 p.44 • 레(D)의 자리 제시(레, 미, 파#, 솔, 라) p.45 • 파(F)의 자리 제시(파, 솔, 라, 시 b, 도) p.50 • 임시표[#, b, ♯] p.46,51,58 • 박자 제시[8분의 6박자] p.56 • 쉼표 제시[8분쉼표]p.56 • 못갓춘마디 p.62 • 다장조 음계, 3화음[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p.68

(4) 세광 뉴 바이엘 4권

4권에서는 장조·단조의 음계와 주요 3화음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제시된다. 더욱 세분화된 리듬과 높은 수준의 연주 기호를 소개하고 있고 연탄곡을 통해 음악적인 연주를 경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26> 세광 뉴 바이엘 4권 - 주요 학습 내용

	주요 학습 내용
4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C)장조 복습 p.8~21 • 당김음 제시 p.14 • 연주기호[악센트, dolce, 글리산도] p.15 • 3도 겹음 진행 p.17 • 다(C)장조의 주요 3화음 p.21 • 가(a)단조[자연단음계, 화성단음계] p.22,24 • 사(G)장조 음계 제시 p.28 • 사(G)장조의 주요 3화음 p.34 • 임시표[#, ♯] p.36 • 음표 제시[16분음표, 점8분음표, 셋잇단음표] p.40,42,59 • 라(D)장조 음계 제시 p.48 • 라(D)장조의 주요 3화음 p.54 • 바(F)장조 음계 제시 p.56 • 바(F)장조의 주요 3화음 p.64 • 라(d)단조[화성단음계] p.66 • 박자 제시[8분의 3박자] p.74 • 꾸밈음[짧은 앞꾸밈음, 겹 앞꾸밈음] p.74 • 연탄곡 p.78

2) 「피아노 어드벤처」

「피아노 어드벤처」는 미국의 음악 교재 전문 출판사인 FJK사에서 출간한 교재이다. 피아노 실기와 교수법, 교육 심리학을 전공한 낸시 웨이버(Nancy Faber)와 랜달 웨이버(Randall Faber) 부부가 20여 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하였다(이한울, 2013). 1993년 초판 이후 미국에서 이미 100회 재판이 발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97년 도입,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개정판이 출시되고 2003년 도서출판 뮤직트리에서 「피아노 어드벤처」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이는 국내 음악 교수법 전문가에 의해 새로 편집되고, 원저자의 감수를 받아 2004년에 완간되었다(이세진, 2013).

이 교재는 미국 음악 교사협회의 추천 교재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교육학을 바탕으로 한 교재 중 가장 최근의 교재이다. 1993년 처음 출간되었으며 이전의 입문 교재들의 단점을 비교적 잘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유리, 2011). 캐나다, 호주, 영국, 스페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자국어로 출간되고 있다. 피아노를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음악성 개발 부분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작곡과 함께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하나의 음악적 개념을 해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습자가 개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리즈로 출판하였다는 것이다.

「피아노 어드벤처」 교재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음악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재이다. 본 교재는 1급부터 8급까지 한 권의 통합 본으로 각 급수별 영역(레슨, 이론 & 청음, 테크닉, 음악성 개발, 연주)에서 최상의 교육 효과가 나도록 구성되었다. 페이지를 순서대로 배워나가면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새로운 방법의 악보 읽기를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방법의 악보 읽기란, 어떤 음을 특정한 손가락으로만 연주해야 한다는 것에서 탈피한 것을 말한다. 즉, 도(C)음은 항상 1번 손가락만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손가락으로 연주하기도 한다는 개념을 뜻한다(김은, 2013). 이러한 제시방법은 피아노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각 음을

독립된 계이름으로 학습하지 않고 손가락 번호만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방지하여 정확하게 음을 파악하도록 한다.

셋째, 피아노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개념과 테크닉들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든 연습곡이 피아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학습 목표를 성취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곡을 연주하는 동안 프레이즈(Phrase) 처리, 손목의 유연한 움직임, 페달 사용 등 전반적인 테크닉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김은, 2013).

넷째, 예술성이 있는 음악을 추구한다. 본 교재는 연주 기술과 예술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주방법뿐만 아니라 음악적 표현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다(김은, 2013). 특히 연주영역은 클래식 명곡들을 쉽게 편곡하여 단순히 손가락의 기교가 아닌 예술적인 연주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체계이다. 화려하고 선명한 컬러 인쇄와 삽화를 통해 학생들이 호감을 느끼도록 유도하였다. 내용 면에서도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과 함께 익숙한 동요나 민요를 적절히 배열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였다(김은, 2013).

(1) 1급 : 올바른 습관들이기

1급에서는 피아노를 치기 위한 바른 자세 및 테크닉(Technique), 건반에 대한 이해와 음악의 기본 요소가 골고루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본적인 보표 읽기와 자리 연습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음악적 개념 설명이 자세하게 제시되었으며 리듬활동 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 흥미로운 학습을 유도하였다.

「피아노 어드벤처」의 1급은 테크닉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기본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이를 위해 농구 선수와 화가, 발레리나와 피아니스트의 기술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각 급수마다 필요한 피아노 테크닉들을 ‘테크닉의 비밀’이라는 코너로 자세하게 다루어 볼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표 27> 피아노 어드벤처 1급 - 8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는 A와 B로 구분

급수	주요 학습 내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세(바른 자세, 손 모양, 손가락번호) p.A6~11 • 테크닉이란 무엇일까요? p.A12~17 • 건반에서의 낮은음과 높은음(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 p.A18~21 • 검은 건반 제시[왼손 / 오른손 2-3, 2-3-4] p.A2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려가기와 올라가기 • 음표[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 점2분음표]p.A28,35,47,86 • 기호[끝세로줄, f, p, 도돌이표, 마디, mf] p.A32,43,50,74,75 • 음이름[우리나라, 영어, 이탈리아] p.A56 • 흰 건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음이름[C-D-E, F-G-A-B] p.A58 - 패턴연습 p.60 - 차례가기, 건너뛰기 p.A64, B73 • C의 자리 / 가운데C의 자리 p.A66,79 • 보표 읽기[보표, 큰 보표, 높은음자리표, 낮은음자리표] p.B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이름 학습[가운데C, 높은G, 낮은F, D-E-F] - 큰 보표 : 높은음자리표 연습[C-D-E-F-G] • 박자표 제시[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p.B30,44 • 낮은음자리표 연습[C-B-A-G] p.B40~63 • 낮은 C의 자리 p.B82 • 붙임줄 p.B98 • 쉼표 제시[4분쉼표] p.B108

(2) 2급 : 반주법의 기초

2급에서는 아티클레이션(레가토, 이음줄, 스타카토)과 빠른 독보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음이름의 위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음정과 화음 학습을 통해 반주법의 기초를 다지도록 구성하였다. 반음과 임시표의 개념 학습 및 으뜸음과 딸림음을 교육함으로써 조성과 조옮김 학습을 준비한다.

<표 28> 피아노 어드벤처 2급 - 8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는 A와 B로 구분

급수	주요 학습 내용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습을 위한 연주 p.A6 • 아티클레이션[레가토, 이음줄, 스타카토] p.A10,23 • 보표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음 A p.A33 - 높은음자리 보표[F, A, C, E] p.A38 - C의 자리[낮은C, 가운데C, 높은C] p.A46 - 높은 C의 자리에 있는 음들[높은 C, D, E, F, G] p.A47 - G의 자리[낮은G, 가운데G, 높은G] p.B56 • 음악기호[옥타브기호, mp, rit., 엑센트] p.A35,52,B48,61 • 음정 제시[2도, 3도, 4도, 5도] p.A60, • 쉼표 제시[2분쉼표, 온쉼표] p.A84 • 반음 p.B4 • 임시표[#, b] p.B6,14 • 으뜸음과 딸림음 p.B24 • C화음[I도화음] p.B.32 • 딸림 7화음[V7화음] p.B42 • 못갓춘마디 p.B67

(3) 3급 : 조성 이해하기

3급에서는 조성과 화음 학습이 체계적으로 발전되고 조옮김을 위한 기본 학습이 제시되었다. 장·단조의 음색 차이를 시각, 청각, 촉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음악적인 연주의 핵심인 프레이즈의 개념과 기능화성의 기초학습이 제시되었다. 재즈의 부기패턴을 경험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리듬감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표 29> 피아노 어드벤처 3급 - 8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는 A와 B로 구분

급수	주요 학습 내용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습 평가 p.A4 • 음표 제시[8분음표] p.A10 • 음악기호[제자리표, cresc, dim., 페르마타, 페달기호] p.A30,46,76, • 조옮김 p.A34 • 프레이즈[Phrase] p.A54 • 반음 복습 p.A66 • 온음 p.A70 • 다섯 손가락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의 자리[D, E, F#, G, A] p.B4 - A의 자리[A, B, C#, D, E] P.B24 • 댐퍼 페달 p.B18 • 왼손 부기 준비 연습 p.B28 • 새로운 음 E p.B34 • 장조와 단조의 음색[C, G, D, A 장조/단조] p.B42 • 빠르기말[Allegro, Moderato, Andante] p.B48 • 듀엣 연주 p.B54

(4) 4급 : 반주 & 섬세한 페달 훈련

4급은 주요 3화음을 중심으로 특정 조성의 반주법을 학습하는 급수이다. 제시된 조성의 주요 3화음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와 조성과 주요 3화음을 충분히 학습하도록 하였다. 곡의 형식을 강조하여 새로운 연습곡을 습득할 때마다 곡의 형식을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을 넘기는 아르페지오와 연결 페달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30> 피아노 어드벤처 4급 - 8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는 A와 B로 구분

급수	주요 학습 내용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습 평가 / 복습을 위한 곡 p.A4 • 큰 보표 위의 모든C p.A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낮은C, 낮은C, 가운데C, 높은C, 아주높은C • 손을 넘기는 아르페지오 p.A22 • 6도 음정 p.A32 • C장조 음계 / I, V7화음] p.A44 • 음악기호[pp, D. C al Fine] p.A50 • 왈츠패턴 p.A60 • G장조 음계 / 조표/ I, V7화음 p.A68 • 형식[2부분 형식-AB형식 / 3부분 형식-ABA형식] p.A80, B14 • 댐퍼 페달 심화학습 p.B4 • 쉼표 제시[8분 쉼표] p.B22 • 음표 제시[점4분 음표] p.B30 • 주요화음[I -IV- V7화음] p.B48 • G장조[I -IV- V7화음] p.B58 • F장조 음계 / I -IV- V7화음 p.B68

(5) 5급 : 반주법 심화 & 다양한 리듬 훈련

5급에서는 심화 리듬(당김음 & 셋잇단음표)을 학습하고, 다양한 재즈리듬을 통해 흥미로운 리듬감을 익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알베르티베이스와 같은 반주패턴을 학습하며 반음계와 한 옥타브 아르페지오, 악곡을 분석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피아노 어드벤처 5급 - 8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는 A와 B로 구분

급수	주요 학습 내용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습 평가 p.A4 • 곡의 형식 2부 형식(AB형식), 3부 형식(ABA형식) p.A22 • 알베르티 베이스 p.A30 • 7도 음정 p.A40 • 음악기호[Common Time(4/4박자) p.A44, CutTime(=allabreve 2/2박자) p.A46, vivacep p.A55, tenuto p.A52, D.C al Coda p.A72, poco rit. p.B64, ff p.B86] • 박자표 제시[2분의 2박자, 8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p.A46, 58, 62 • 음표 제시[셋잇단음표] p.B4 • 덧줄[높은 덧줄, 가운데 덧줄, 낮은 덧줄] p.B20 • 스윙 리듬 p.B26 • 반음계 p.B44 • 랙타임 리듬 p.B48 • D장조 음계 / I-IV-V7화음 p.B58, 62 • 반주패턴[오스티나토 반주, 알베르티 베이스] p.B • 한 옥타브 아르페지오 p.B78

(6) 6급 : 12개의 장·단조 3화음 & 스피드를 위한 테크닉

6급에서는 한 옥타브 안에서의 자연·화성단음계, 12개의 장·단조, 주요 3화음 및 화음의 자리바꿈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그리고 나란한조와 꾸밈음을 학습하며 16분 음표의 짧고 어려운 리듬을 제시한다. 게임을 통해 빠른 손놀림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표 32> 피아노 어드벤처 6급 - 8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는 A와 B로 구분

급수	주요 학습 내용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습 평가 / 복습을 위한 곡 p.A4 • 옥타브 p.A13 • 음악기호[D.S al coda p.A22, motorit. p.B34] • 오스티나토 p.A26 • A단조, D단조[자연 단음계 / 화성 단음계] p.A38, 62 • 동기와 동형진행 p.A52 • 장·단3화음 p.B4 • 3화음의 세 가지 자리 p.B38 [기본위치, 첫째 자리바꿈, 둘째 자리바꿈] • 돌림 2부 형식 p.B42 • 음표 제시[16분음표] p.B54 • 쉼표 제시[16분쉼표] p.64

(7) 7급 : 피아노에서 서정적으로 노래하기

7급에서는 클래식과 재즈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악곡이 등장하며 느리고 서정적인 연습곡의 비중이 높아진다. 장·단조를 넘나들며 조성의 개념과 화음을 몸에 학습하도록 한다. 더욱 섬세한 악상기호와 우아한 테크닉으로 보다 더 예술적이고 음악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 33> 피아노 어드벤처 7급 - 8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는 A와 B로 구분

급수	주요 학습 내용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습 평가 / 복습을 위한 곡 p.A4 • 장조와 나란한조의 음계 p.A5 • 음계 강화 학습 I p.A9 • C장조와 A단조의 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조의 기본위치 첫째자리 바꿈, 둘째자리 바꿈 p.A12 • 동기와 동형진행 복습 p.A36 • 점8분음표와 16분음표 p.A44 • 음계 강화 학습 II p.A56 • F장조와 D단조의 음계 p.A58 • 화음의 자리바꿈 심화학습 p.B22 • 음악기호[트릴기호 p.B26, 로코(loco) p.B46, molto p.B62, poco a poco p.B72] • 샹프 조표 p.B40 • 샹프 조표의 심화 학습 p.B41 • 8분의 3박자와 8분의 6박자의 16분음표 p.B70

(8) 8급 :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하는 연주력

마지막 단계인 8급에서는 앞의 교재에서 습득한 모든 개념과 테크닉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곡을 분석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모든 조에서 마침꼴을 학습하며 겹박자 및 플랫 조표를 정리하여 음계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34> 피아노 어드벤처 8급

급수	주요 학습 내용
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습 평가 / 복습을 위한 곡 p.4 • 마침꼴 p.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이즈의 끝[I - V] - 부분의 끝[V - I] - 곡의 끝[V7- I] • 겹박자 p.24 • 음악기호[Lento p.25,piumosso p.52, 마주르카 p.114, 루바토 p.114] • 음정 이름 짓기[완전4도, 완전5도, 완전8도] p.34 • 5도권 p.50 • 2옥타브 아르페지오 p.60 • 플랫 조표[B\flat, E\flat, A\flat, D\flat, G\flat] p.74 • 2옥타브 플랫음계[F, B\flat, E\flat] p.77 • 단음계의 3가지 형태[자연, 화성, 가락] p.102

2. 「세광 뉴 바이엘」과 「피아노 어드벤처」 비교·분석

1) 교재의 구성 및 특징

(1) 세광 뉴 바이엘

「세광 뉴 바이엘」 교재는 피아노 입문자를 위한 총 4권의 교재이며 기초음계와 손가락 훈련을 위주로 구성된 연습곡이다. 이 교재는 내용 체계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발전한다. 깔끔한 흰 바탕색의 내지에 악보의 크기가 학생들이 보기 좋도록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재 속 간단한 삽화가 흥미를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그림의 크기에 비해 작품 제목이 작다. 따라서 그 주제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악곡이 주는 느낌을 학습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2) 피아노 어드벤처

「피아노 어드벤처」의 올인원 교재는 발견과 창조, 모험을 토대로 한 교재이다. 한 권으로 통합된 올인원 교재는 총 8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급은 네 가지 영역(레슨, 이론과 청음, 테크닉과 음악성 개발, 연주)으로 상호 강화작용을 하며 음악적 지식을 다지고 연주력과 음악성을 개발시켜 준다. 특히 다른 교재와 차별되는 점은 각 교재에 등장하는 「피아노 어드벤처」 캐릭터들이다.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해 피아노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화려한 색채와 디자인이 학생들의 정서를 따뜻하게 자극하고 교재의 중간에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아이콘들은 연습에 대한 지루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학생들을 위한 저자의 세심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8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는 A와 B로 구분지어 교재의 두께를 줄여 휴대하기 편하게 하였다.

(3) 교재의 구성 및 특징 비교

「세광 뉴 바이엘」과 「피아노 어드벤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광 뉴 바이엘」은 기초적인 개념 학습 및 훈련을 단기간에 걸쳐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이는 단순한 반복의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손가락 주법에 대한 습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반면, 「피아노 어드벤처」는 현대 교수법에 근거하였다. 이는 「세광 뉴 바이엘」교재의 기본개념 이외에도 상상력과 창조력, 표현력 등을 더 기를 수 있는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즉, 「세광 뉴 바이엘」은 손가락의 기술적인 향상을 위한 형식으로 단기간에 독보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쓰인 교재라 한다면 「피아노 어드벤처」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음악적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이다.

시각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세광 뉴 바이엘」은 주제와 관련된 깔끔한 삽화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려고 하였으나 「피아노 어드벤처」에 비해 디자인이나 삽입 캐릭터가 다소 진부함이 느껴진다. 반면 「피아노 어드벤처」는 현재의 교육 방향과 시대에 맞게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주제와 관련된 삽화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표현되고 있다.

<표 35> 교재의 구성 및 특징비교

교 재	내 용	
세광 뉴 바이엘	책의 구성	총 4권으로 구성
	내용	단기간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
	특징	기본 주법, 간단명료한 설명, 깔끔한 배경과 삽화
피아노 어드벤처	책의 구성	총 8급으로 구성 + 병행교재
	내용	종합적 음악성 개발, 상세한 설명, 현대적 디자인
	특징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전인적 교육

2) 피아노 기초교재의 기본자세 비교

(1) 세광 뉴 바이엘

① 피아노에 앉는 자세

「세광 뉴 바이엘」 1권에서는 바른 자세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따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허리를 펴는 자세나 의자 사이의 거리, 피아노를 편하게 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명시되어 있다.

② 손가락 번호

「세광 뉴 바이엘」 교재에서는 손가락 번호에 대한 개념 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왼손, 오른손 손가락 번호만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③ 손 모양

「세광 뉴 바이엘」은 1번과 5번 손가락을 세우고 2, 3, 4번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구부려 둥근 손 모양이 되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건반을 칠 때 팔꿈치가 내려가지 않도록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2) 피아노 어드벤처

① 피아노에 앉는 자세

「피아노 어드벤처」는 캐릭터들의 등장과 함께 건반과의 거리, 의자의 높이, 허리와 어깨의 자세, 발의 위치의 바른 자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르지 않은 자

세의 그림을 나타내어 잘못된 곳을 찾아보도록 유도한다. 특히 바른 자세를 확인하는 것과 교정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② 손가락 번호

손가락 번호는 왼손, 오른손 손가락 번호를 학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피아노 건반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아노 뚜껑 위에서 둥근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언급한다. 왼손과 오른손 양손까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바른 손 모양과 함께 손가락 번호를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도록 캐릭터들을 등장시킨다. 이를 통해 게임을 하면서 놀이처럼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③ 손 모양

손 모양에서는 ‘테크닉 천사’라는 캐릭터가 나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손 모양을 둥글게 만드는 마법을 부려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둥근 손 모양의 자세를 더 강화하기 위하여 영어 알파벳 C모양을 제시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건반에서도 자세를 익힐 수 있도록 손의 힘을 풀고 손 모양을 둥글게 하라는 세심한 지도를 한다. 이와 함께 둥근 손 모양을 만들기 위한 연결 동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3) 기본자세 비교

「세광 뉴 바이엘」은 기본자세에 대한 내용이 2쪽 분량으로 간단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피아노 어드벤처」는 14쪽 분량으로 심도 있게 비중을 두었다. 「피아노 어드벤처」는 학생들의 바른 자세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스토리텔링이나 게임식의 연습 방법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피아노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 나아가 「세광 뉴 바이엘」 과 달리 「피아노 어드벤처」에서는 단순히 기본자세 이외에 피아노 테크닉에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추가하였다. 피아노 테크닉의 다섯 가지 비밀을 키워드로 태권도 자세를 통해 건반과의 거리를 조절하게 하고 꽃봉오리가 피어나듯이 둥근 손 모양을 만들 수 있게 제시하였다. 동그라미 손가락과 짙은 밧줄, 단단한 손끝과 팔의 무게를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며 엄지손가락 위치의 유의점까지 설명하고 기본적인 테크닉을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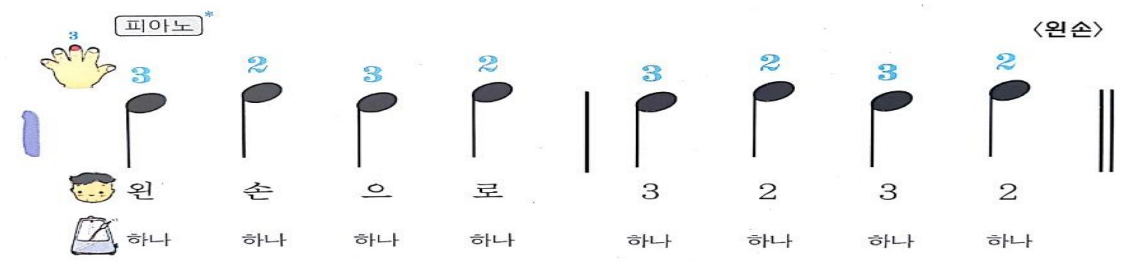
<표 36> 기본자세 비교

교재	피아노에 앉는 자세	손가락 번호	손 모양
세광 뉴 바이엘	허리를 펴고 피아노와 의자 사이를 조절하여 앉도록 간단히 설명	그림으로 제시	둥근 손 모양 제시
피아노 어드벤처	피아노 어드벤처 캐릭터들의 등장과 함께 바른 자세 설명	그림 및 게임 활동 유도	‘테크닉 천사’ 캐릭터 등장, 알파벳 C 제시, 건반 활동으로 연계

3) 최초의 연습곡 형태

(1) 세광 뉴 바이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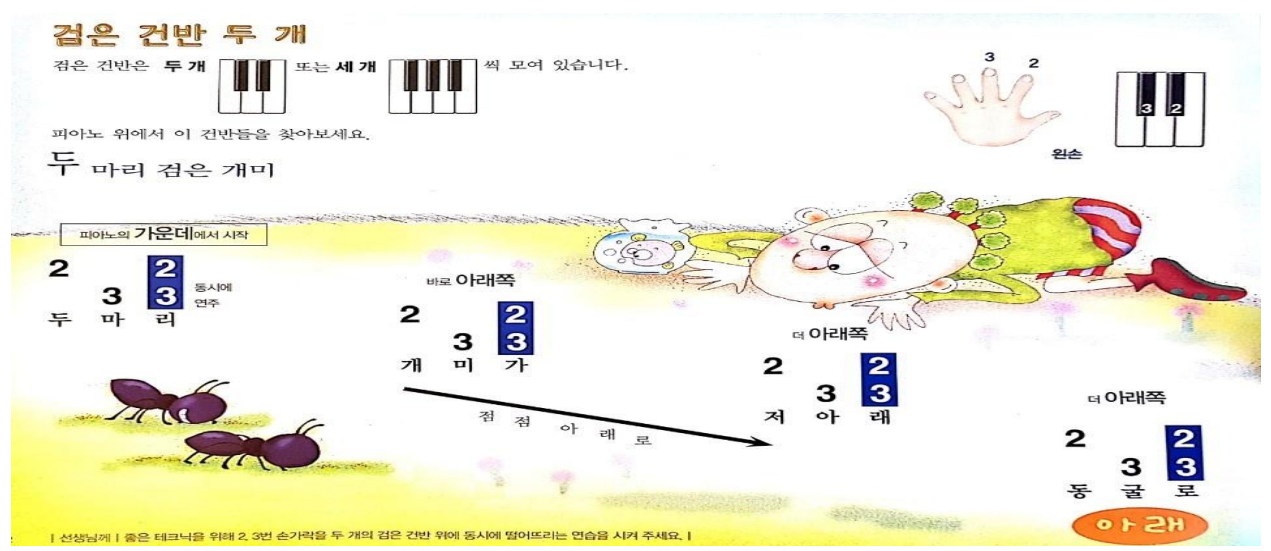
「세광 뉴 바이엘」은 검은 건반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검은 건반이 흰 건반보다 앞서서 제시되었다. 같은 위치에서 왼손, 오른손 2~3번 손가락 번호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 보표이며, 가사를 통해 4분음표 박자를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최초의 연습곡 형태는 피아노를 시작하는 입문자들에게 비교적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였다.



<악보 1> 세광 뉴 바이엘 1권 p.10

(2) 피아노 어드벤처

「피아노 어드벤처」는 바이엘과 동일하게 흰 건반보다 검은 건반을 먼저 도입하였다. 피아노를 치기 전에 먼저 피아노 위에서 검은 건반들을 탐색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피아노의 가운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하므로 음역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좋은 테크닉을 위해 2, 3번 손가락을 검은 건반 위에 동시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함으로써 단단한 손끝도 유도하고 있다.



[그림 1] 피아노 어드벤처 1급 A의 교재 p.22

(3) 최초의 연습곡 형태 비교

「세광 뉴 바이엘」과 「피아노 어드벤처」의 공통점은 검은 건반을 먼저 경험하게 함으로써 검은 건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건반과 손가락 번호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것인데 바이엘에서는 건반 위에 손이 있어 한 눈에 번호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반면 「피아노 어드벤처」는 건반과 손이 분리되어 있어 인지하기가 불편하다.

이와 더불어 바이엘은 제자리에서 번호를 반복하여 음을 누를 수 있도록 제시된 반면 「피아노 어드벤처」는 보다 폭넓은 음역과 음을 동시에 누름으로써 화성 감까지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피아노 어드벤처」가 「세광 뉴 바이엘」보다 청음에 대한 접근을 더 강조한다.

둘 다 무 보표이며 학습자가 악보를 읽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최초의 연습곡 형태는 비교적 단순하다. 바이엘은 4분음표를 사용하지만 「피아노 어드벤처」는 번호만으로 사용하여 「세광 뉴 바이엘」보다 독보에 대한 부담감을 더 줄였다.

마지막으로 「세광 뉴 바이엘」과 「피아노 어드벤처」를 비교해 볼 때 「피아노 어드벤처」는 처음부터 나도 작곡가라는 아이콘을 도입하였고 독보 이외의 학습도 추가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최초의 연습곡 형태 비교

교재	내용
세광 뉴 바이엘	무 보표 읽기, 4분음표로 제시 검은 건반의 도입(왼손 / 오른손), 제한적 위치에서 학습
피아노 어드벤처	무 보표 읽기, 번호로 제시 검은 건반의 도입(왼손 / 오른손), 전건반에 걸쳐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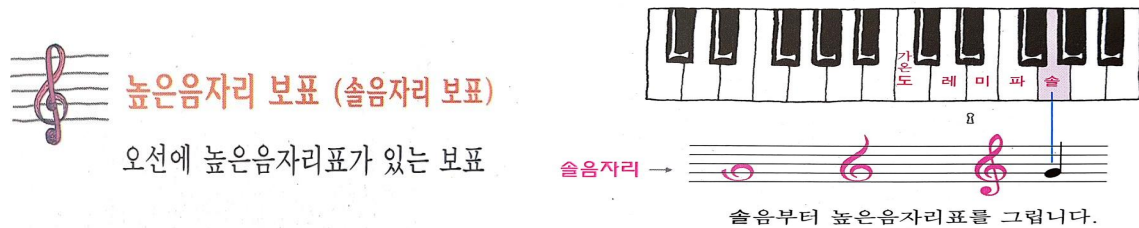
4) 보표의 접근

(1) 세광 뉴 바이엘

「세광 뉴 바이엘」은 높은(솔)음자리 보표와 낮은(파)음자리 보표 그리고 큰 보표 손으로 제시하며 오선(줄, 칸)과 세로줄, 끝세로줄, 마디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높은음자리 보표는 “솔”음을 기준으로 하여 보표상의 높은음자리표 위치를 학습하게 하고 낮은음자리 보표도 이와 동일하게 “파”음을 기준으로 보표상의 낮은음자리표 위치를 학습하게 하였다.

「세광 뉴 바이엘」은 곡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비학습으로 리듬활동을 제시하였고 오른손으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곡을 구성하였다. <악보 2>처럼 삼화(손가락 표시, 엄마의 얼굴, 메트로놈)를 통해 학습자가 보표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그림 2] 세광 뉴 바이엘 1권 p.32



<악보 2> 세광 뉴 바이엘 1권 p.32

(2) 피아노 어드벤처

「피아노 어드벤처」는 처음부터 큰 보표를 통해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에 대한 개념을 동시에 설명하고 소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넓은 음역을 건반과 함께 제시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큰 보표와 함께 가운데 C, 높은음자리표 G, 낮은음자리표 F의 위치를 순서대로 학습하게 구성되어 있다.

낮은음자리표와 높은음자리표

낮은음자리표는 아래쪽 보표에 있으며 가운데 C 아래쪽 음들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왼손으로 연주하세요. 가운데 C부터 음이름을 말하며 차례로 내려가세요. 이 음들은 낮은음자리 보표의 음들입니다.

높은음자리표는 위쪽 보표에 있으며 가운데 C 위쪽 음들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오른손으로 연주하세요. 가운데 C부터 음이름을 말하며 차례로 올라가세요. 이 음들은 높은음자리 보표의 음들입니다.

위의 보표에는 모두 몇 개의 음들이 있나요? 맨 아래에서 맨 위까지 세어 보세요. ____ 개

[그림 3] 피아노 어드벤처 1급 B의 교재 p.9

[그림 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운데 건반을 기준으로 위에는 낮은음자리표와 높은음자리표에 대한 개념설명을 제시한다. 아래에는 큰 보표를 통해 독보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큰 보표를 채우는 3옥타브 안에서의 음들을 가운데 C의 기준으로 차례대로 음이름을 제시한다. 따라서 줄 - 칸에 대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3) 보표의 접근 비교

「세광 뉴 바이엘」은 높은음자리표 보표와 낮은음자리표 보표를 차례대로 제시하여 큰 보표에 접근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피아노 어드벤처」는 큰 보표와 건반과의 매치를 처음부터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눈에 큰 보표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세광 뉴 바이엘」과 「피아노 어드벤처」는 기준선 솔(G)과 파(F)를 공통점으로 제시하였으며, 붉은색을 통해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표 38> 보표의 접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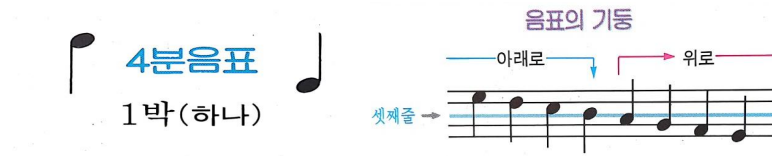
교재	내용
세광 뉴 바이엘	높은음자리 보표, 낮은음자리 보표, 큰 보표 순으로 설명 솔음자리, 파음자리의 기준선을 제시
피아노 어드벤처	큰 보표와 건반을 매칭 +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탐색 처음부터 큰 보표와 함께 높은음자리 보표, 낮은음자리 보표를 설명 둘째 줄 G선 제시, 넷째 줄 F선을 제시

5) 음표·쉼표·박자표

(1) 세광 뉴 바이엘

「세광 뉴 바이엘」이 음표를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권에 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 점2분음표, 2권에 8분음표, 3권에 점4분음표, 4권에 16분음표, 점8분음표, 셋잇단음표로 구성되어 있다. 음표를 학습한 후 셋째 줄을 기준으로 하여 음표의 기동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그림 4]와 같이 셋째 줄에 파란색으로 강조함으로써 기둥의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줄 위에 있는 음들은 기둥이 아래로 셋째 줄 아래에 있는 음들은 기둥이 위로 갈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박자에 대한 표시를 1박(하나), 2박(하나-둘), 4박(하나-둘-셋-넷), 3박(하나-둘-셋)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세광 뉴 바이엘 1권 p.11, p.41

「세광 뉴 바이엘」의 쉼표 제시는 2권에 4분쉼표, 온쉼표, 2분쉼표 순으로 구성되었다. 4분쉼표와 2분쉼표는 같은 음가의 음표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온쉼표는 한마디를 쉴 때 쓰는 쉼표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온음표와 같은 음가라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p>4분쉼표</p> <p>4분음표의 길이 만큼 한 박 동안 쉽니다.</p>	<p>2분쉼표</p> <p>2분음표의 길이와 같이 2박 동안 쉽니다.</p>	<p>온쉼표</p> <p>한 마디를 쉴 때 쓰는 쉼표입니다.</p>
---	---	--

[그림 5] 세광 뉴 바이엘 2권 p.11, 13, 29

「세광 뉴 바이엘」에서 제공하는 박자표는 1권에서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2권에서는 4분의 2박자, 3권에서는 8분의 6박자, 4권에서는 8분의 3박자 순이다. 그러나 여기서 박자표의 분모는 음표를, 분자는 개수라는 자세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rac{4}{4}$ 4분의 4박자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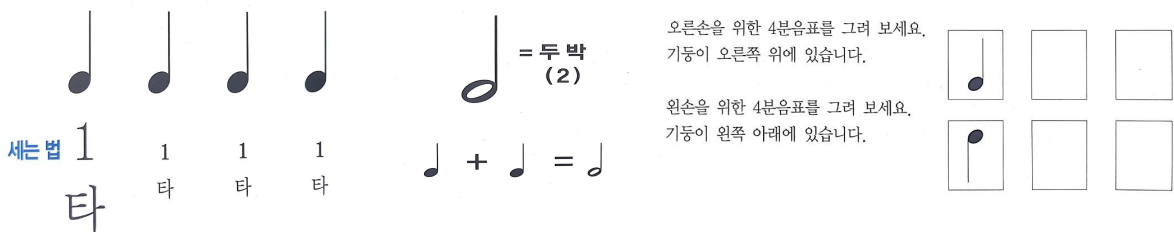
$\frac{3}{4}$ 4분의 3박자

4분음표(♩)가 한 마디에 3개 있습니다.

[그림 6] 세광 뉴 바이엘 1권 p.33,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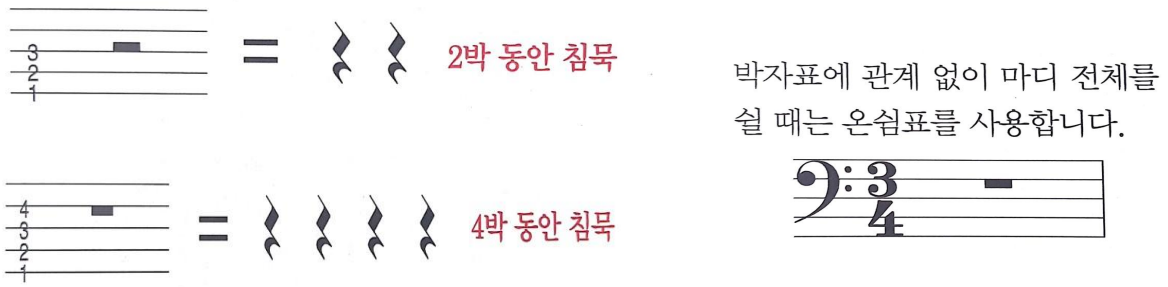
(2) 피아노 어드벤처

「피아노 어드벤처」에서 제시하는 음표는 다음과 같다. 교재 1급 A에서는 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 점2분음표, 3급 A에서는 8분음표, 4급 B에서는 점4분음표, 6급 B에서는 16분음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4분음표에서는 고정박을 강조하여 정확한 리듬을 습득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박자돌이라는 캐릭터가 매번 나와 학생들과 함께 신체 리듬 활동을 해준다. 박자를 세는 방법으로 ‘one one one one’ 또는 ‘타 타 타 타’를 사용한다.



[그림 7] 피아노 어드벤처 1급 A의 교재 p.28, 35

「피아노 어드벤처」에서 제시하는 쉼표는 1급 B에서는 4분쉼표, 2급 A에서는 2분 쉼표, 온쉼표, 4급 B에서는 8분쉼표 순으로 구성되었다. 쉼표는 4분쉼표를 사용해 침묵의 순간을 설명하고 있고 오선에서의 2분쉼표와 온쉼표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3/4박자의 박자표를 제시해 마디 전체를 쉴 때도 온쉼표를 사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림 8] 피아노 어드벤처 2급 A의 교재 p.84

「피아노 어드벤처」에서 제시하는 박자표는 교재 1급 B에서는 4분의 4박자를 시작으로 4분의 3박자, 2급 A에서는 4분의 2박자 순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4분의 2박자는 개념설명 없이 바로 연습곡이 등장하여 학습에 대한 일관성이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개념들은 충분히 명시되었다. 끝으로 4분의 4박자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분자와 분모의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분모가 기준이 되는 음표임을 언급하였다.

4/4 : 한 마디 안에 네 박이 들어있습니다.
4/4 : 4분음표(♩)를 한 박으로 합니다.

[그림 9] 피아노 어드벤처 1급 B의 교재 p.30

(3) 음표·쉼표·박자표 학습 비교

「세광 뉴 바이엘」과 「피아노 어드벤처」 두 교재는 비교하였을 때 모두 4분쉼표, 2분쉼표, 온쉼표, 8분쉼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세광 뉴 바이엘」은 「피아노 어드벤처」보다 비교적 다양한 음표를 제시하고 음표의 기동 방향을 설명할 때도 셋째 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이 있다.

반면, 「피아노 어드벤처」는 4분음표 학습에서 고정박에 대한 개념을 「세광 뉴 바이엘」보다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삽화를 통해 신체 활동(리듬 훈련)을 익힐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그리고 박자표 학습에도 「피아노 어드벤처」가 「세광 뉴 바이엘」보다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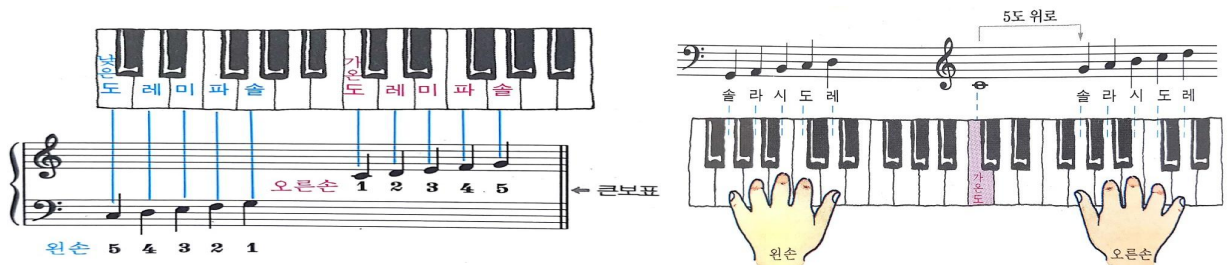
<표 39> 음표·셈표·박자표 학습 비교

교재	음표	셈표	박자표
세광 뉴 바이엘	9가지 음표 제시 간단한 설명	같은 음가의 음표와 비교하며 제시	기본적인 설명
피아노 어드벤처	7가지 음표 제시, 고정박+ 신체활동	4분셈표를 사용하여 침묵으로 표현 셈표의 위치 설명	분자와 분모를 통해 시각적으로 설명

6) 게이름·음이름

(1) 세광 뉴 바이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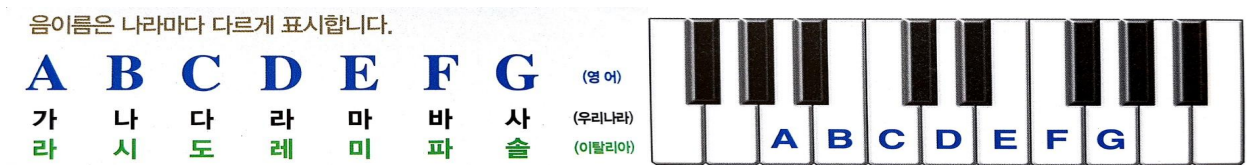
「세광 뉴 바이엘」 1권은 흰 건반을 학습하기 시작하면서(pp.18~31) 건반과 함께 음표에 간단한 게이름이 제시된다. 또한 높은음자리표 보표가 등장하면서 게이름의 제시가 없다가 48쪽부터 큰 보표에서 건반과 연결해 제시한다. 이를 통해 왼손과 오른손의 도, 레, 미, 파, 솔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오른손, 왼손 음을 차례대로 익힐 수 있게 2곡으로 구성한다. 다음으로 게이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오른손, 왼손 3도씩 건너뛰는 곡으로도 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게이름 도-레-미-파-솔은 손가락 1-2-3-4-5로 지정한다. 1권은 도에서 솔까지, 2권에서는 솔의 자리를 학습하면서 솔에서 레까지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10] 세광 뉴 바이엘 1권 p.48, 2권 p.36

(2) 피아노 어드벤처

「피아노 어드벤처」 1급에서는 피아노의 건반에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 이에 영어, 우리나라, 이탈리아 음이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C-D-E를 시작으로 F-G-A-B, 가운데C, 높은G, 낮은F, D-E-F 등으로 체계를 가지고 구성되었다. 또한 영어 음이름을 통해 조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세 개의 검은 건반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은 건반 사이의 흰 건반 G를 찾아 G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내려가며 음이름을 연주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그림 11] 피아노 어드벤처 1급 A의 교재 p.56

[그림11]과 같이 영어 음이름, 우리나라 음이름, 이탈리아 음이름을 큰 건반을 통해 함께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건반의 밑줄 위에 음이름을 써보는 활동을 시작으로 음이름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비행기 CD 16/17

오뚜기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악보 3> 피아노 어드벤처 1급 A의 교재 p.59

<악보 3>은 음이름 C-D-E를 학습한 후 레슨 곡으로 제시되었다.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비행기’라는 멜로디를 통해 음이름 학습을 더욱 친숙하게 익힐 수 있게 하였다. 스스로 탐험이라는 아이콘을 제시하여 내려가는 음, 올라가는 음, 반복되는 음을 찾도록 하는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3) 게이름·음이름 학습 비교

「세광 뉴 바이엘」은 음이름에 대한 학습이 없이 게이름 중심의 학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이론교재를 병행해야지만 음이름들을 보충할 수 있다. 반면 「피아노 어드벤처」는 1급에서 우리나라·영어·이탈리아 음이름과 게이름을 모두 소개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어 음이름을 중심으로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피아노 어드벤처」는 영어 음이름을 학습함으로써 전체적인 부분에서 「세광 뉴 바이엘」보다 기초 단계에서부터 조성을 염두에 두고 음이름을 구성한다.

「피아노 어드벤처」는 1급 B부터 세로줄 다음 첫 음마다 음이름을 써넣을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독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세광 뉴 바이엘」은 처음에 도, 레 미, 파, 솔의 5음 음계를 제시한다. 반면 「피아노 어드벤처」는 A, B, C, D, E, F, G의 7음 음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40> 계이름·음이름 학습 비교

교재	계이름	음이름
세광 뉴 바이엘	계이름 중심 학습 1권 : '도~솔'까지 학습 2권 : '솔~레'까지 학습	학습하지 않음
피아노 어드벤처	체계적인 음이름 구성	영국, 우리나라, 이탈리아 음이름을 동시에 소개 조성에 대한 기본을 처음부터

7) 음정

(1) 세광 뉴 바이엘

「세광 뉴 바이엘」 교재는 음정을 음표와 음표 사이의 거리라고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2도는 주어진 음의 위나 아래의 음에 줄과 칸, 칸과 줄 사이라고 나타내고 같은 음끼리는 1도라는 언급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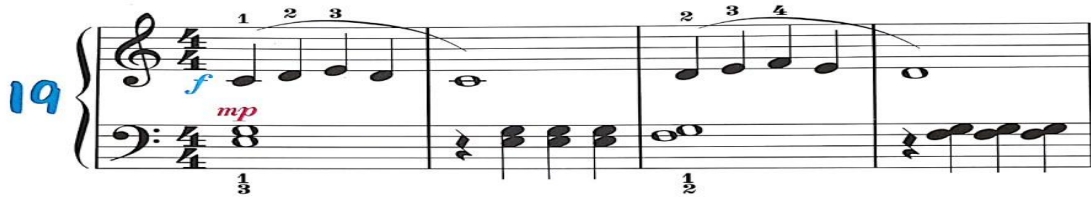
<친구>와 <재미있는 피아노> 부분에는 3도가 등장한다. 1, 2, 3도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연습곡에 해당하는 음정이 사용된 곳을 손으로 짚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음정 (단위:도)
음표와 음표 사이의 거리



[그림 12] 세광 뉴 바이엘 1권 p.57

「세광 뉴 바이엘」 2권부터는 음정을 학습할 때 먼저 가락음정과 화성음정을 하나의 연습곡 안에 제시한다. 이로써 두 가지 음정의 차이를 동시에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화성음정은 대부분 왼손에만 집중되어 있어 오른손에서의 선율적인 기능보다 반주의 기능만을 갖는 것과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



<악보 4> 세광 뉴 바이엘 2권 p.27

(2) 피아노 어드벤처

교재의 1급에서는 차례가기와 건너뛰기의 개념을 먼저 학습한다. 그리고 2급에서 본격적으로 음정(2도, 3도, 4도, 5도)을 제시한다. 음이름과 건반을 통해 음정을 설명하고 있다.

위로 아래로

줄 - 칸 칸 - 줄

2도 = 차례가기

2도는 바로 옆에 있는 음이름으로 움직입니다.

1 2 = 2도

[그림 13] 차례가기

위로 아래로

줄 - 줄 줄 - 줄

3도 = 건너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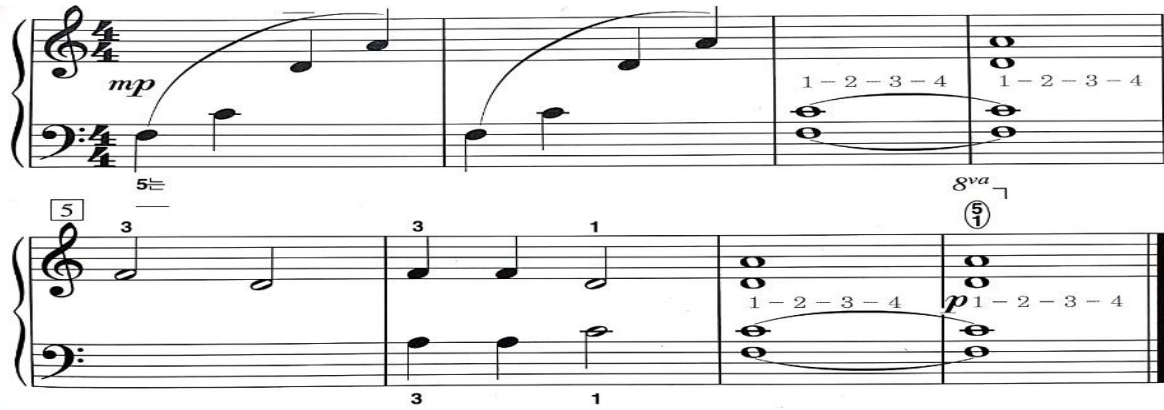
3도는 음이름을 하나 건너뛸니다.

1 2 3 = 3도

[그림 14] 건너뛰기

[그림 13-14] 피아노 어드벤처 2급 A의 교재 p.60

<악보 5>에서 보다시피 5도 음정부터는 한 연습곡 안에서 펼침음정과 모음음정을 동시에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페달을 사용하여 가락음정과 화성음정의 소리를 섬세하게 나타낼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악보 5> 피아노 어드벤처 2급 A의 교재 p.75

(3) 음정 학습 비교

「세광 뉴 바이엘」은 오선을 사용해 음정의 개념을 설명한다. 반면 「피아노 어드벤처」는 음정의 개념을 오선뿐 아니라 건반을 통해서도 설명한다. 이는 「세광 뉴 바이엘」에 비해 더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한다. 「세광 뉴 바이엘」은 화성음정이 거의 왼손에서 반주로서의 기능만 강조된다. 그러나 「피아노 어드벤처」는 양손에 고르게 나타나 선율과 반주의 기능을 모두 소개하도록 하였다.

음정 학습을 비교해 볼 때 「세광 뉴 바이엘」과 「피아노 어드벤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곡의 구성이나 개념 설명이 아니라 음정을 통해 나타나는 소리이다. 특히 「피아노 어드벤처」는 음악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셈여림이나 페달의 사용,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을 통해 음정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표 41> 음정 학습 비교

교재	내용
세광 뉴 바이엘	오선을 사용하여 음정을 설명 가락음정을 먼저 익힌 후에 화성음정과 함께 익힘. 화성음정은 주로 왼손에서만 제시됨.
피아노 어드벤처	오선과 건반을 통해 음정을 설명 연습곡 마다 가락음정과 화성음정을 동시에 익힘 화성음정은 양손에 고르게 제시됨

8) 음계·주요 3화음 학습

(1) 세광 뉴 바이엘

1권, 2권에서는 음계와 화음에 대한 학습이 제시되지 않으며 3권 후반부에서 처음으로 다장조의 음계가 제시된다. 그러나 음계학습을 위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다장조의 음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를 위해서는 장조의 개념과 온음과 반음, 음이름 등 기초개념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계 학습에서는 배열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지 않고 양손의 손가락 번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반음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C)장조 음계

오른손
1 2 3 1 2 3 4 5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왼손 5 4 3 2 1 3 2 1

<악보 6> 세광 뉴 바이엘 3권 p.64

다장조의 주요3화음, 가단조의 자연단음계와 화성단음계, 사장조, 라장조, 바장조의 음계와 주요3화음, 라단조의 화성단음계의 순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주요3화음은 기본 위치부터 제시하지 않고 자리바꿈한 화음을 다루고 있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 제시된 ‘I, IV, V’ 화음기호 읽는 방법이 소개되지 않아 언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C, F, G’의 코드를 제시하기 전에 음이름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악보 7> 세광 뉴 바이엘 4권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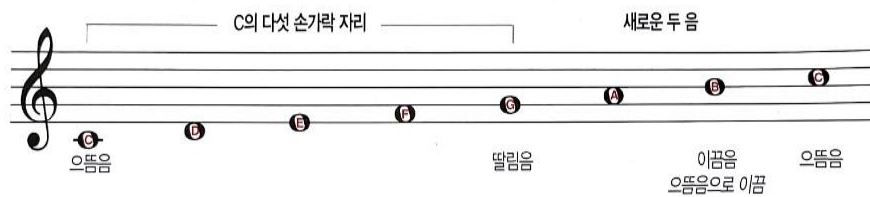
가단조 자연단음계는 별도의 설명 없이 음계의 그림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가단조 자연단음계 연습곡은 ‘가단조-다장조-가단조’ 형태로 전조되었다. 이를 통해 장조와 단조의 조성감을 비교하며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가단조의 화성단음계는 솔음에 #을 붙임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악보 8> 세광 뉴 바이엘 4권 p.24

(2) 피아노 어드벤처

1~3급에서 음이름, 반음과 온음, 으뜸음과 딸림음의 개념을 학습하였다. 그리고 음계의 기초 학습으로 C, G, D, A장·단조 음계의 다섯 손가락 자리까지 다루어 미리 익히도록 하였다. 4급에서 C, F, G장조의 한 옥타브 음계, 주요3화음(I, IV, V7)을 학습한다. 음계는 으뜸음, 딸림음, 이끔음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주요화음은 처음부터 V가 아닌 V7화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악보 9> C장조 음계

<악보 9>와 같이 C장조 음계는 C의 다섯 손가락 자리에 두 개의 음(A와 B)을 더하고 일곱 개의 영어 음이름이 모두 사용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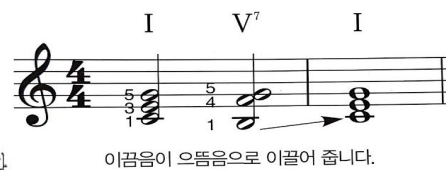
C장조에서

제 1음 C는 으뜸음(tonic)입니다.

제 5음 G는 딸림음(dominant)입니다.

제 6음 A는 딸림음에서 온음 위에 있습니다.

제 7음 B는 이끔음(leading tone)입니다. C보다 반음 아래에 있고, 으뜸음 C로 이끌어 줍니다.



<악보 10> C장조의 I, V7 화음

<악보 9-10> 피아노 어드벤처 4급 A의 교재 p.44, 55

(3) 음계와 주요 3화음 학습 비교

「세광 뉴 바이엘」은 음이름, 반음과 온음, 화음기호에 대한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바로 음계와 주요3화음을 그림으로만 제시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제시된 그림에서도 음계는 배열순서가 아닌 연주할 때의 손가락번호로 나타나 있다. 화음도 처음부터 자리바꿈 위치로 제시되어 있어 개념을 이해하는데 더욱 혼란을 주고 있다.

「피아노 어드벤처」는 반음과 온음, 음이름, 화음기호 등의 학습이 선행되었다. 따라서 음계와 주요3화음 학습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부연 설명까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세광 뉴 바이엘」에 없는 으뜸음, 딸림음, 이끔음을 보충 설명하면서 C장조의 I, V7 화음까지 연계 할 수 있도록 언급하고 있다.

C장조의 음계를 배우기 전 준비학습에서 엄지를 손가락 안으로 넣어 새로운 손의 자리로 이동하는 방법을 학습 하도록 하는데 손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박수가 긴 음표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준비 할 시간을 준다.

<표 42> 음계와 주요3화음 학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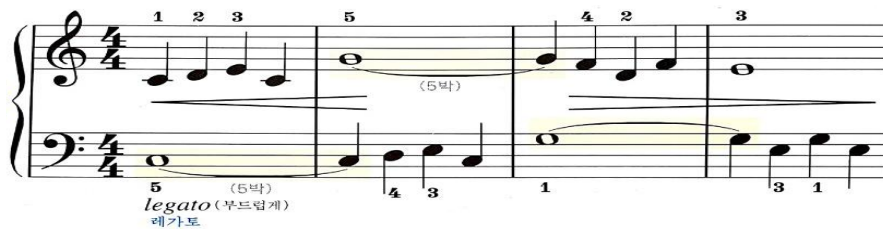
교 재	내 용
세광 뉴 바이엘	3권에서 C장조 음계학습 4권에서 a-G-D-F-d 음계와 주요3화음(I, IV, V)을 학습 기초개념 설명이 부족하여 음계와 조성의 이해가 어려움.
피아노 어드벤처	3급에서 C-G-D-A장·단조 음계를 학습 4급에서 C-F-G장조의 음계와 주요3화음(I, IV, V7)을 학습 1에서 3급까지 음계를 학습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들이 모두 제시되어 음계와 조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9) 아티클레이션

(1) 세광 뉴 바이엘

① 붙임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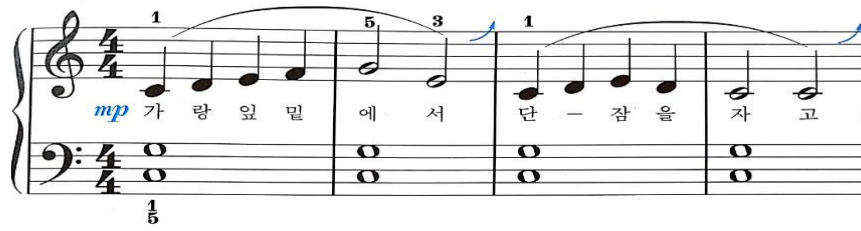
교재의 2권에서 붙임줄은 음높이가 같은 두 음을 이은 줄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교재의 구성으로는 이음줄과 스타카토 다음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붙임줄은 가장 늦게 제시되었다. 또한 곡의 연주에 앞서 레가토(부드럽게 이어서 치기)와 붙임줄을 언급하면서 차이를 알 수 있게 설명하였다. <악보 11>에서 각 마디에 걸쳐 붙임줄과 함께 5박동안 건반을 누를 수 있도록 박의 길이를 숫자로 표시해 주었다.



<악보 11> 세광 뉴 바이엘 2권 p.50

② 이음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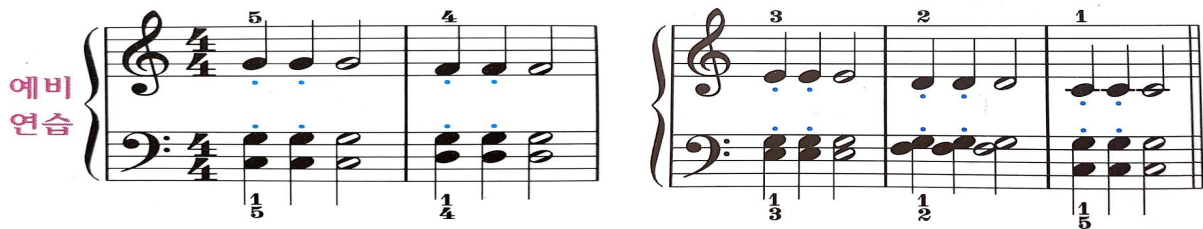
2권의 교재에서 이음줄은 여러 개의 음을 이어서 부드럽게 연주하고 두 마디씩 이음줄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 뒤를 이어 이음줄과 같은 기법으로 레가토 주법도 함께 설명하고 악보에서 이음줄이 끝나는 부분에 화살표로 표시를 하여 손목을 가볍게 들어 올리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프레이즈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오른손으로 이음줄을 먼저 학습한 다음 왼손도 연습할 수 있도록 곡을 구성하였다.



<악보 12> 세광 뉴 바이엘 2권 p.21

③ 스타카토

교재 2권의 스타카토를 들어가기 전 오른손과 왼손 손가락 번호(5-4-3-2-1)의 순차적인 반복음을 통해 짧게 연주하는 예비연습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타카토가 있는 음을 분명히 소리 낼 수 있도록 언급하고 이 표시가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파란색으로도 강조를 하였다. 스타카토의 전반적인 악곡이 왼손에 주로 화성음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음도 스타카토를 경험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악보 13> 세광 뉴 바이엘 2권 p.32, p.33

<악보 13>을 보면 왼손의 음정이 5도, 4도, 3도, 2도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정의 진행과 손가락 번호를 차례대로 사용함으로써 스타카토의 고른 표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 피아노 어드벤처

① 붙임줄

1권 B의 내용에서 붙임줄은 같은 높이의 두 음을 연결해 주는 줄이라고 설명한다. 줄로 연결된 음표는 다시 연주하지 않고 두 음표를 더한 길이만큼 계속 누를 수 있도록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개념을 자세히 설명한 후 곡에서 사용된 붙임줄에는 따로 설명을 추가하거나 표시하지 않는다.



<악보 14> 피아노 어드벤처 1급 B의 교재 p.98

② 이음줄

2급에서의 이음줄은 레가토 기법과 함께 제시되었다. 이때 붙임줄의 개념을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두 기법 간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나타내었다. 또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버터 사탕, 솜사탕, 초콜릿)를 통해 부드러운 느낌을 상상하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악보 15> 피아노 어드벤처 2급 A의 교재 p.10

③ 스타카토

2급 A에 제시된 스타카토는 탱탱볼과 팝콘이 튀는 소리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툭툭 튀는 듯 한 소리를 내기 위해 음을 끊어서 치는 기법을 스타카토라 설명하면서 레가토의 반대라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곡을 치기에 앞서 다섯 손가락의 사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3번 손가락만을 사용하여 연주해 볼 수 있도록 제안하고 1, 2, 3, 4, 5번 손가락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piano exercise in 4/4 time.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has four measures with lyrics: 탱 탱 볼 이 탱 탱 탱 이 리 저 리 탱 탱 탱. The second system has four measures with lyrics: 이 리 저 리 탱 탱 탱 멀 리 멀 리 탱 탱 탱. Below the second system, there are fingering instructions: 첫 번째는 ③ ③ ③ ③ ③ and 두 번째는 5 4 3 2 1.

<악보 16> 피아노 어드벤처 2급 A의 교재 p.23

(3) 아티큘레이션 학습 비교

두 교재는 붙임줄, 이음줄, 스타카토를 모두 제시하였다. 이음줄의 개념은 같은 의미를 가진 레가토의 기법과 함께 소개하였다.

「세광 뉴 바이엘」은 이음줄, 스타카토, 붙임줄 순서대로 제시한다. 반면 「피아노 어드벤처」는 붙임줄, 이음줄, 스타카토의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특히 「피아노 어드벤처」는 레가토의 반대, 탱탱볼, 팝콘이 튀는 소리를 연상하게 하여 스타카토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3> 아티클레이션 학습 비교

교재	내용
세광 뉴 바이엘	2권에서 이음줄, 스타카토, 붙임줄 순으로 제시 스타카토는 음을 분명하게 끊어서 연주하도록 설명
피아노 어드벤처	1급 B에서 붙임줄, 2급 A에서 이음줄, 스타카토 순으로 제시 스타카토를 탕탕볼과 팝콘이 튀는 소리에 비유 먼저 3번 손가락 번호만 사용하여 연주해 보도록 제안한 후 1, 2, 3, 4, 5 손가락 번호로 스타카토를 연주 할 수 있도록 함

10) 임시표

(1) 세광 뉴 바이엘

교재의 3권에서 임시표(#, b, ♯)가 모두 소개되었다. 45쪽에서 ‘레’의 자리(레, 미, 파, 솔, 라)를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가 붙은 ‘레’의 자리(레, 미, 파#, 솔, 라)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b도 이와 동일하다.

#가 붙은 ‘레’의 자리(레, 미, 파#, 솔, 라)에서는 오른손 중심으로 #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비중을 두었다. 반면 b이 붙은(파, 솔, 라, 시 b, 도)는 왼손도 충분히 b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고 제자리표는 곡이 한 곡으로 맨 마지막의 한 마디에 간략하게 제시된다. #, b에 비해 연습곡의 비중이 낮게 구성 되어있다.

끝으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재의 악보 내에 #와 b이 같은 마디에 다시 나올 때는 음표에 파란 동그라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효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올림표 (샤프) 반음 올린다.

b 내림표 (플랫) 반음 내린다.

제자리표 (내추럴) #, b 이 붙은 음표를 제자리로 가게 합니다.

조금 빠르게

f 즐거움 게 놀고 난 후 장난감 은 제자리

legato

<악보 17> 세광 뉴 바이엘 3권 p.46, 51, 58

4권에서는 임시표의 사용이 다시 한 번 언급된다. <악보 18>과 같이 2마디와 4마디에 #와 b를 제시해 곡의 한 마디에서만 변화를 준다고 설명을 하였다. 또한 조표가 붙은 연습곡에 임시표를 넣어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3권과 달리 파란 동그라미를 표시하지 않았다.

「세광 뉴 바이엘」의 활동에서 언급한 내용은 준비되지 않는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곡을 학습하기 전에 임시표가 있는 둘째 마디의 왼손을 여러 번 부분연습한 후 치라고 제시되어 있다.

임시표 (#, b)
곡의 한 마디에서만 변화를 줍니다.
- 반음 올린다.
b - 제자리로 돌아간다.

보통 빠르기로 (바이엘 79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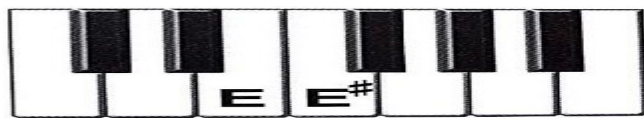
<악보 18> 세광 뉴 바이엘 4권 p.36

(2) 피아노 어드벤처

임시표(#, b)는 2급에서 반음의 개념을 학습할 때 소개한다. 먼저 반음을 올리거나 내리는 연습을 통해 임시표의 개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E#와 Fb의 자리도 건반으로 나타내고 #와 b이 흰 건반을 칠 수도 있음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

샤프(#)가 붙은 음이 같은 마디에 다시 나올 때에는 #가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한다. 마디가 바뀌었을 때의 표기까지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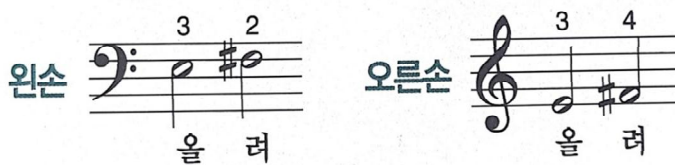
끝으로 #와 b을 하기 위하여 손목의 사용도 설명하여 자세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시 되고 있다.



E#는 흰 건반입니다.
(B# 역시 흰 건반입니다.)



샤프(#)가 붙은 음이 같은 마디에 다시 나올 때에는 #가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주.



흰 건반을 친 다음 검은 건반을 칠 때는 손을 건반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듯이 이동시킵니다.

[그림 15] 피아노 어드벤처 2급 B의 교재 중 p.6, 8, 14

한편, ♮는 3급에서 제시된다. 플랫이나 샤프(#, b)를 취소하고 원래의 음으로 돌아가 제자리표는 항상 흰 건반이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제자리표(내추럴Natural)는 플랫(b)이나 샤프(#)를 취소하라는 표시입니다. 제자리표가 붙은 음은 항상 흰 건반을 연주합니다.

[그림 16] 피아노 어드벤처 2급 B의 교재 p.12

(3) 임시표 학습 내용 비교

두 교재 모두 #, b, ♮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세광 뉴 바이엘」은 #, b를 반음에 대한 언급이 없이 검은 건반의 경우 (파#, 시b)만 그림으로 제시한다. 학습자들이 #, b은 검은 건반만 치는 것으로 잘못 인지시킬 위험이 있다.

반면, 「피아노 어드벤처」는 반음 훈련을 통해 #, b을 제시한다. 또한 흰 건반을 치는 경우(E#, B#, Fb, Cb)도 설명하여 더욱 명확하게 임시표의 개념을 언급한다.

<표 44> 임시표 학습 비교

교재	내용
세광 뉴 바이엘	샤프와 플랫(#, b)은 레의 자리, 파의 자리 학습 후 소개 검은 건반의 경우만 언급 ♮는 #, b이 붙은 음표를 원래의 위치로 가게 한다고 설명
피아노 어드벤처	샤프와 플랫(#, b)은 반음의 개념 학습 후 소개 검은 건반 / 흰 건반의 경우를 모두 언급 ♮는 #, b을 취소하고 항상 흰 건반을 연주한다고 설명

V. 결론 및 제언

음악교육은 정서가 메말라 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인적인 인격과 풍요로운 정서 함양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피아노 교육은 음악적 잠재력 및 기초음악성을 개발하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 활동으로 아동 교육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음악교육에 있어서 피아노 기초교재의 올바른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 교재선택에 대한 기준과 교재의 비교를 진행하였는데 다양한 피아노 기초교재들 중 「세광 뉴 바이엘」과 「피아노 어드벤처」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피아노 기초교재의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광주 지역의 피아노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전에 비해서 피아노를 전공한 교사들이 비전공 교사들보다 증가하였고 교사들 대부분이 음악학원을 통해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학원에서는 「바이엘」교재를, 개인레슨의 경우에는 「피아노 어드벤처」교재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학습 환경에 따라서 교재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음악학원에서도 교사들이 기초교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을 보면 과거의 선율과 반주라는 기본적인 피아노 어법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학습자의 중심에서 연령과 흥미도, 학습능력, 테크닉 등에 신경을 쓰는 추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피아노 기초교재 중 「세광 뉴 바이엘」과 「피아노 어드벤처」를 선택,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광 뉴 바이엘」교재는 다양한 음악적 개념과 주석이 부족하여 포괄적인 음악교육 과정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나 기존의 바이엘과 달리 적절한 수준의 그림, 무 보표 형태의 악보사용으로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되었다. 반면에 「피아노 어드벤처」는 다양한 음악적 개념과 충분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종합적인 음악성을 체계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교재의 요건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으나 따로 교육을 받지 않고 교사 스스로 연구하여 가르치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학습능력은 각 개인차가 있고 피아노 학습을 시작하는 동기와 원하는 목표 수준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각 교재의 특징 및 악곡표현과 학습 목표가 다르므로 초보자의 경우, 피아노 교재를 선택하는 교사나 학부모가 학습자에 맞는 교재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교재라고 무조건 가치 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각 교재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시중에 새로 출판되는 여러 교재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재의 성격과 구성, 학습 목표를 파악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학습 목표에 맞는 교재를 고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어느 한 교재만을 사용하기보다 교재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다른 교재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희(2015). 통합적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5권 6호(통권14호), 281-291.
- 김신애(2014). 초보 학습자를 위한 기초 가야금 교재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배(1985). **도입기의 피아노 교육**. 예음서.
- 김은(2013). 초급교재를 통한 효과적인 피아노 교육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효(2017).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아일랜드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조형교육**, 62권 (통권62호), 53-79.
- 세광음악출판사 편집부(2004). **세광 뉴 바이엘 1-4권**. 세광음악출판사.
- 송정이(1986).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서울: 음악춘추사.
- 원미정(2009). 피아노 기초교재 비교분석과 교재사용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태희(1773). **음악교육개론**. 대구: 학문사.
- 음악대사전(1982). **초판 교재 항목**.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이성희(2000). 바이엘 피아노 교재의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진(2013). 피아노 초급 교재 분석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경(1987). **과거 피아노 교육의 문제점 및 현대적 교육으로서의 전환**. 음악춘추사.
- 이유리(2011). 기초 피아노 교재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울(2013). 성인을 위한 피아노 교습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1990). Robert Pace 피아노 교본에 관한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선(2007). 초급 피아노 교재의 비교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출판사.
- 장혜윤, 임채홍 (2017).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특성과 분류체계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7~52.
- 정옥희(2017). 예비교사들이 경험한 예술교육 내러티브 탐구. **한국조형교육학회**, 제62권 (통권62호), 165-185.
- 정완규(2002). 피아노 교수법의 필요성과 대학의 역할. **중앙음악연구**, 11, 7-19
- 조유림(2010). 피아노 기초교재 비교분석 및 사용 실태조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우(2009). 피아노 기초 교육을 위한 교재 분석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은(2007). 피아노 기초 교재의 효과적 선정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사현(2016). 쇼펜하우어의 음악철학: 감정미학과 절대음악 사이. **철학연구**, 제139권, 265~313.
- Nancy Faber(2013). **피아노 어드벤처 1-8급**. 뮤직트리.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피아노 선생님

『피아노 기초 교재의 분석 및 교사를 중심으로 교재 선택과 활용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연구가 되도록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솔직하게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7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허 수 민

- 설문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1.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 ~ 25세 ② 26 ~ 30세 ③ 31 ~ 35세
④ 36 ~ 40세 ⑤ 41 ~ 50세 ⑥ 50세 이상

2.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전문대 피아노과 ② 4년제 피아노과 ③ 음악학부 다른 전공()
- ④ 음악교육 전공 ⑤ 유아교육 전공 ⑥ 대학원 음악학과 (전공)
- ⑦ 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⑧ 해외유학 졸업

2-1 만약 피아노를 전공 안하셨다면 얼마동안 배웠습니까?

(타 전공, 음악교육 전공 해당)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4년 미만 ③ 4년 이상 ~ 7년 미만
- ④ 7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3. 선생님의 지도 경력은 몇 년입니까? 약 ()년

4. 선생님이 현재 지도하는 학생의 연령대는 어떠합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취학 전 아동 ②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 3학년)
- ③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 6학년) ④ 중·고등학교 ⑤ 기타

5. 피아노 레슨 유형은 어떠합니까?

- ① 개인레슨 ② 교습소 ③ 음악학원

- 피아노 초급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 -

1. 다음 중 사용한 경험이 있었던 교재를 모두 고르세요.

바이엘 베스틴 알프레드 피아노어드벤처 하이비스 톰슨 이지스트 클라비어

2. 본인이 사용한 교재들의 특징이나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③ 몇 개는 안다()

3. 피아노 교육에서 교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4. 교사의 피아노 레슨 유형이 초급교재 선택에 영향을 줍니까?

① 많은 영향을 준다 ② 영향을 준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안준다

5. 본인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초급교재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바이엘 ② 베스틴 ③ 알프레드 ④ 피아노 어드벤처
⑤ 하이비스 ⑥ 톰슨 이지스트 ⑦ 클라비어 ⑧ 기타()

6. 위의 초급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7. 피아노 기초교재를 선택 하실 때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아동의 연령 ② 아동의 학습능력 ③ 아동의 흥미도
- ④ 테크닉적인 발전 ⑤ 제제곡의 난이도
- ⑥ 교재의 인지도가 높아서 ⑦ 제제곡이 좋아서

8. 학생들마다 신체·지적발달에 따라 알맞은 교재를 사용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9. 초급교재에 대한 연구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0. 피아노 교육에서 교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모르겠다

11. 현재 올바른 초급교재 사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인터넷 정보검색 ② 세미나 및 공개강좌 참여
- ③ 교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한다 ④ 전혀 안 한다
- ⑤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거나 교재 연구를 한다

12. 현재 사용하는 초급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 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이유는? (중복체크 가능)

- ① 교재 사용 교육을 받아서
- ② 교재 내용이 피아노교수법으로 체계적이어서
- ③ 지도하기 쉽거나 과거에 배운 경험이 있어서
- ④ 삽입캐릭터가 세련되고 예뻐서, 학생이 좋아해서
- ⑤ 레퍼토리가 다양해서

2)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이유는? (중복체크 가능)

- ① 교재 사용이 어려워서
- ② 교재 내용이 피아노교수법과 무관해서
- ③ 가르치기 어려워서
- ④ 디자인과 삽입캐릭터가 진부해서
- ⑤ 학부모가 원치 않아서
- ⑥ 레퍼토리가 다양하지 않아서

13. 앞으로 새로운 초급교재로 교체 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아래 1) 질문 항목으로 이동
- ② 아니오

1) 새롭게 교체 할 교재는?

- ① 바이엘
- ② 베스틴
- ③ 알프레드
- ④ 피아노 어드벤처

2) 새로운 교재로 교체 하는 이유는? (중복체크 가능)

- ① 세미나를 통해 좋다는 것을 느껴서
- ② 학생에게 지도하기 편해서
- ③ 시대의 흐름에 호응하기 위해
- ④ 학부모의 권유
- ⑤ 학생이 다른 교재를 원해서
- ⑥ 기타 (의견)

- 교사의 피아노 지도에 관한 사항 -

1. 레슨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개인 레슨을 받고 있다 ② 관련서적, 논문을 본다
- ③ 전혀 안한다 ④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

2. 교수법 향상을 위한 교수법 관련 세미나에 참석 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참석하신다면 현재 사용 중인 교재와 연관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학생 레슨과 관련된 교재에 대하여 분석 또는 연구를 하십니까?

- ① 항상 연구 한다
- ② 월 1 ~ 2 회 연구 한다
- ③ 교재 구입했을 때만 연구한다
- ④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다
- ⑤ 공개수업이나 연주회 전에만 연구한다

4. 처음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실기와 이론지도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시작합니까?

- ① 이론과 실기 지도를 동시에 같이 시작한다
- ② 실기 지도를 먼저 시작하고 이론은 나중에 시작한다
- ③ 이론 지도를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실기 지도를 시작한다
- ④ 기타 ()

5. 교사는 피아노 교재의 수록곡에 관한 실기연습을 합니까?

- ① 매일 한다 ② 주 2 ~ 3 회 이상 ③ 한 달에 1 ~ 4 회 이하
- ④ 전혀 안 한다 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6. 피아노 레슨 시간에 교사가 직접 연주해 주는가?

- ① 매 곡마다 연주해 준다 ② 학생이 어려워하는 곡만 연주해 준다
- ③ 가끔 연주해 준다 ④ 전혀 연주해 주지 않는다

7. 교사가 피아노 교재를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중복체크 가능)

- ① 교사 지침서 ② 교재에 관한 세미나 ③ 메트로놈
- ④ 교구 ⑤ 교수법 관련 서적 ⑥ 기타 (의견) :

8. 레슨과정에서 진도를 넘어갈 때 중점이 되는 요소는? (중복체크 가능)

- ① 독보력 ② 표현성 ③ 암보 ④ 템포 ⑤ 리듬 ⑥ 음정
- ⑦ 기타 (의견) :

9. 기초과정에서 청음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 ① 주 1 회 ② 주 2 회 ③ 월 1 회 ④ 월 2 회
- ⑤ 가끔 한다 ⑥ 전혀 안한다

10. 기초과정에서 이론 수업은 어떻게 진행 하십니까?

- ① 주 1 회 ② 주 2 회 ③ 월 1 회 ④ 월 2 회
 ⑤ 레슨 때마다 항상 ⑥ 가끔 한다 ⑦ 전혀 안한다

11. 기초과정에서 감상 수업은 어떻게 진행 하십니까?

- ① 주 1 회 ② 주 2 회 ③ 월 1 회 ④ 월 2 회
 ⑤ 가끔 한다 ⑥ 전혀 안한다

12. 기초과정에서 즉흥연주를 포함한 창의적 수업은 어떻게 진행 하십니까?

- ① 주 1 회 ② 주 2 회 ③ 월 1 회 ④ 월 2 회
 ⑤ 가끔 한다 ⑥ 전혀 안한다

13. 피아노 수업 이외에 특강 수업을 하십니까?

- ① 한다 ② 안한다

13-1. 특강 수업을 하신다면 그 종류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리코더 ② 단소 ③ 국악 ④ 이론(서양)
 ⑤ 동요 ⑥ 음악감상 ⑦ 기타()

14. 현재 지도중인 피아노 교수법에 대한 아동 지도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 ① 주 1 회 ② 주 2 회 ③ 월 1 회 ④ 월 2 회
- ⑤ 레슨 때마다 항상 ⑥ 가끔 한다 ⑦ 전혀 안한다

15. 선생님과 학부모의 학생상담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①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만 ② 6개월에 1 ~ 2 회
- ③ 매월 1 ~ 2 회 ④ 수시로

16. 학생의 진도 결과에 대한 구두 및 지면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개인별 평가 ② 연주회
- ③ 다른 교사와 평가한다 ④ 안한다

17. 학부모님께서 요구하는 피아노 지도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진도 위주(실기) ② 이론 위주(학교 성적과 관련된)
- ③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 ④ 연주 기술과 반주법
- ⑤ 콩쿨 참여 및 연주회 참가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